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조 유 철
편집위원 박 성 태
편집장 곽 채 선
외대신문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루 영

#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제300호
<주간>
1980년 5월 2일
매주 금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본보지령 300호·기념 특집호 목차

1면=화보·기념사·축시
2면=개교기념치사·사설
3면=보도기사·빈의자
4면=창조적 미래를 위한 오늘의 진통
5면=자유의철학 (시리이즈 I)
6·7면=NOVUM의 철학적 두근거
8면=300호 기념소설"음지(陰地)"
9면=1면 읍기사로 본 외대사(史) 「하수도」 25선(線)
10면=가등취재 (노사문제)
11면=대학발전을위하여 두리의문제는…(커리큘럼) 대학언론의 지향점, 크로니클
12면=사람마루·시·수필·이문만평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본보 지령 300호 기념 특집호

# 학원 자유의 파수꾼 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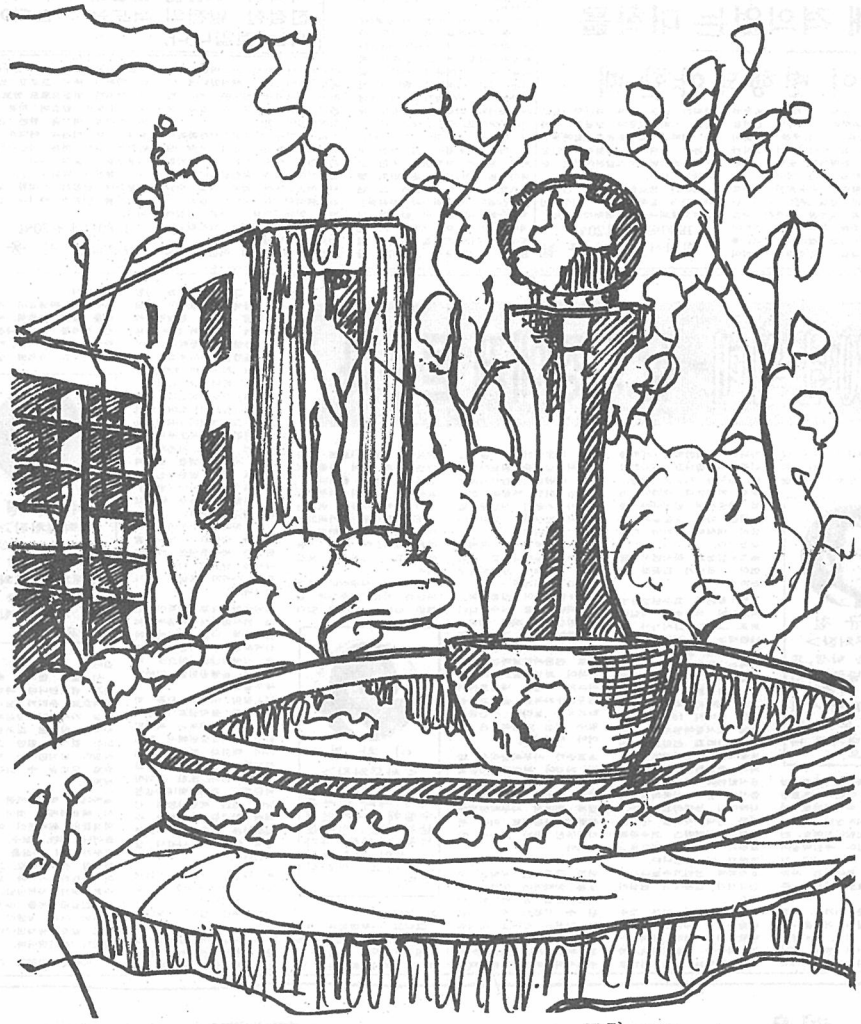


그림 김광요 교수 <독일어과>

기념사

## 생동하는 외대의 지성들에게

이제는 자취를 감춘 전차의 요란스런 궤도음을 들으며 종로통의 한 빌딩에서 「어학교육의 새요람」으로 문을 연 외대가 지금은 드넓은 이문동캠퍼스에서 성년의 나이로 훨씬 넘은 26돌의 생일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라블로이드판」으로 한달에 발행날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외대학보」가 이제는 라블로이드배판에 주간으로 성장, 지령3백호에 창간 25주년을 맞았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모교를 떠난지 20년이 넘는 동문의 한 사람으로, 또 학보제작에 참여했던 학보사 동인의 한 사람으로 감회가 새롭다.

외대는 지난 4반세기동안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캠퍼스가 커졌고 학과가 늘었고 학생수도 엄청나게 불어났다.

20년전에는 고시 합격자 명단속에 외대라는 두 글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매년 적지않은 이들이 오르내린다. 외무고시는 외대인의 독무대처럼 되었고, 세칭 일류 기업체에 진출하는 졸업생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모처럼 외국에 나가 보면 온통 외대 출신들뿐이다. 정말 반갑고 대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속에서 외대인이 잃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오늘 26회의 생일을 맞는 시점에 서서 냉철히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최근 우리의 대학은 중대한 시련과 변혁기에 처해 있다. 학원의 자율화라는 커다란 명제를 앞에 두고 대학은 저마다 산모의 진통을 앓고 있다.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산모의 소란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출산할 아기의 건강과 장래를 생각하며 조용히 자신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산모도 있다.

우리는 어떤 산모가 며 훌륭한 아기를 낳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진통하는 자세로 미루어 볼때 후자가 더욱 믿음직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대학은 나라와 겨레의 장래를 내다볼줄 아는 지성의 산실이어야 하며,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자제와 슬기로 해결할줄 아는 이성의 집결체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대학이 고전적 의미의 아카데미즘만을 고수하라는 것은 아니다. 행동할때는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되 대학인 답게 해야한다.

대학인다운 행동은 어떤 것인가.

나는 4·19때 거리로 뛰쳐나온 여러 분 선배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을때 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과감하게 행동으로 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깨달았을때 사회의 질서회복을 외치며 서슴없이 학원으로 되돌아 갔다.

4·19가 학생들의 데모에 의해 한 부패정권이 무너졌다는 의미이상을 지닌 것도 이와같은 대학인들의 슬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의 대학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학원자율화는 우리 대학인이 기필코 이룩해야 할 궁극의 목표요, 이상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시련과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하지만 거기엔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화된 얘기지만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상대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서 참다운 자신의 자유를 찾을수 있는 것이다.

최근 신문지면을 메우는 학원사태 기사를 보는 사회의 집약된 눈은 대학인 스스로써 자율화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외대인들은 명심해 주기 바란다.

성년 외대의 도약을 축하하는 마음은 이러한 모든 걱정을 기우(杞憂)로 돌릴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숙한 외대와 외대학보가 외대의 살아있는 지성을 충실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손 기 상 <동문·중앙일보 편집부국장>

(축) (시)

## 시인이여

민 용 태

달이 지기 전
동이 트기 전
한 때
시인이여
너는 너의 그 무거운
꿈을 들치고
살그머니 몸만 빠져나오라
어둠은 돌아앉는 숫처녀의 속눈섭
이슬은 첫사랑의 첫 마디 말
풀벌레 소리조차 숨을 죽인
하얀 길
시인이여
네가 산보를 나가야 할 때는
바로 이 때
산보는
볼펜을 굴리며 가는 것보다는
연필을 죄새기 삼아 끌고 가는 게 좋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마음을 발에 달고 가는 일
시인이여
길이 따로 있는가
길은 바로 너의 발 밑이다
갈 길이 따로 있는가
너의 발과 길의 대화를 들어라
너의 발끝에 채이는 돌멩이
돌멩이는 돌멩이와 부딪쳐 눈을 뜬다
너의 걸음걸이의 가벼운 율동
율동은 시시각각 숨어 든다
시인이여
이제 너는
너의 눈과 귀와 마음을
길에 맡겨도 좋다
달이 지기 전
동이 트기 전
머지 않아 너의 시는
여명(黎明)을 밟고 오는 햇살.

<홍문시인·영수불나어과부교수>

## 사설

# 지령 300호를 맞으며

—「외대」와 「외대학보」

금호 (今號) 로써 본보는 지령 (紙齡) 300호를 맞이하였다. 대학인문 창달의전초 (前哨) 에서 또한 가로 신문의 효시 (嚆矢) 격 존재로서 지난 1956년 창간된 이래 25년간이라는 광지 (曠年) 을 임묵 (任墨) 으로 이제야 300호를 맞게 되었다는 것에 그간의 다나 (多難) 했던 본보의 역정 (歷程) 을 생각하게 한다.

본보는 본대학의 역사와 함께 전진한 대학의 어문학생이 노력해 왔다. 「대학기구」와 「인문」이 상호 대립적 관계라는 한일관 도그마에서 탈피해 양자의 지양적 통일을 전제했을 때 대학의 발전과 대학인문의 성장이 기대되는 것이다. 동시에 대학사회에서의 인문이 갖는 사명을 중년이 인식하고 그것이 신문의 제작에서 구현일 때 인문은 본질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정립하게 됨은 이미 새삼스러운 얘기일 뿐이다.

창간연도에 비해 많은 지양을 갖고 있는 본보가 그러한 대학인문대학의 정주성의 견지를 위하여 끝임없는 비판과 중인의 시금을 놓치지 않았다고 감히 자부해본다. 이는 혼히 신문이 창간기념일 따위에 치사 (致辭) 하는 자화자찬 (自畵自讚) 의 그것이 아니다.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지난 299호까지의 외대학보걸음 걸음보다 회한 (悔恨) 과 자책의 뼈아픈 자기반오에 빠지지보다는 차라리 부끄 (愧恥) 스러울지라도 스스로의 역사에 대면해 하여 보는 것이다.

본보의 창간 25주년을 보내면서, 거슬러 올라가 지난해의 년대와 개교 25주년을 맞이해 보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번외대학인 공복의 편집사를 거슬 만으로써, 이와같은 외대만 보기시서 보고자 한다. 그것은 지난 종학생회 선거를 전후해서 학내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고, 여러 인쇄보지들에게 거의 관련같은 이슈로 제기되었던 「외대의 구심점」 혹은 「외대의 상징 (象徵) 의 부재」로 표현된 문제이다. 본 주보의 「외대의 뿌리를 찾자」는 구호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선전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현재 전개한 사학 (私學) 의 육성이 어떠한 상황에서 「외대의 내일화」로부재 문제의 핵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대의 주심점 혹은 구심점 기왕의 여문조사에서 보여주는 「그림다」 「아니다」의 차원을 떠나 이미 그 문부터 부차점이 노정되는 단계가 아니가 한다. 년대학의 복장 (特長) 으로 내세울 「국제주의」가 지나친 현실성 혹은 정인지향적 비학문성으로 인해 그 학문성을 보이는 지금 바야흐로 이 문제의 년거적인 환기 (喚起) 와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대학의 정체성이지 의심에 보는 이러한 문제는 항그의 「외국어기술학원」 같으로 변모되는 년대학의 취학성에 비추어 새로운 좌표설정의 필요가 긴절 (緊切) 한 것이다.

결론 이것은 확고한 전망을 수립하기 이전에 60, 70년대 대학이 처한 외적상황의 전경사로부터 사시 (看破) 의 선결 (解決) 로 접이야는 방도 없지 않는한 필 이것이 현상유지가 가능한 보이한 것인의 문제에서 현지불가 (不地爲) 를 일으킨다는 일기의 바람도 일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정통에서 과연 (必行) 하고 있음직도 보는다는 우려가 진착 (侵) 하는 신대에서 취업인한 문제의 인지 (認知) 가일이야 한다.

지나 외대학보사 (史) 는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년거적 문제에의 전근보다 지입적이며 피상적인 사건과의 연관으로 전달받지도 보는다. 창간 25주년과 지연 300호를 자축 (自祝) 하면서도 내심으로 개탄되는 것은 그와 같은 소이 (所以) 이다. 상후 본보는 대학인 전이 가학이는 이러한 년검적 문제를 부단히 도마 위에 올릴것이다. 「외대」를 따나 「외대학보」의 뿌 (根) 를 결계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독자의 참이가 긴요하다 다시금 독자의 적극적 자세를 당부하는 바이다.

# 이해와 신뢰로 일체감을

금년이 개교 26주년이 되는해다. 이제 외대도 완숙한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다른 대학에 비한다면 26년이란 세월은 그다지 긴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대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장족의 발전을했다. 금년은 민주화의 물결이 학원가 처절한 상론 (爭議) 이 미쳐 아물지도 않은 때에 취임하여 대학의 질을 존중하면서 구준히발전하여 갔다. 개교 당시 법·불·중·독·노어과를 겨냥한 소규모의 초창기 10여년간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엄격한 정원제를 고수하면서 정장생 한명 받지 않고 학술의 교육을시킨 덕분으로 그간 많을 우수한 졸업생들을 배출시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미 1 반열이 넘는 동문들이 국내외의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실력있는 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있다.

우리대학은 비교적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 질적인 향상을 기하면서 발리 성장한 대학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인 필요성과 요청에 따라 양적인 팽창이 현가피하게 되었다. 작년에 2부가 신설되고 금년에 음인불교가 신설되었다. 이제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양적인 성장과 동시에 질적성장을 기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차분히 내실을 기하고 교육내용을 강화할 때다. 보다 알차고 실속있는 대학으로 성장시켜야 할것이다.

우리 전외대인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자 옷깃을 여미면서 노력해야 할 때다. 대학은 학생·교수·경영진 3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3자가 각자 의무와 권리를 존중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3자가 조화있게 협력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노력할 때인 것이다.

이제 학원에 자유화와 민주화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 남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질서와 대화를 통해 우리 대학이 민주화되어야할 것이다. 어떠한 폭력이나 강압도 민주화의 역행이 될뿐이는 일은 없다. 과거의 잘잘못을 시비하기보다 앞날의 발전을 위해 서로 동감을 넓어놓고 의논을 펼때이다. 서로간의 입장은 다르지만 학교발전이라는 큰 목표는 같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 외대인들은 일치단결하여 민주화의 방법으로의대발전에협력해야했다.

1980년 4월20일

학장서리 조 규 철

## 개교 26주년 기념사

# 청년외대 그 정기의 발산을

금년은 민주화의 물결이 학원가 처절한 상론 (爭議) 이 미쳐 아물지도 않은 때에 취임하여 대학의 질을 존중하면서 구준히발전하여 갔다. 개교 당시 법·불·중·독·노어과를 겨냥한 소규모의 초창기 10여년간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엄격한 정원제를 고수하면서 정장생 한명 받지 않고 학술의 교육을시킨 덕분으로 그간 많을 우수한 졸업생들을 배출시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미 1 반열이 넘는 동문들이 국내외의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실력있는 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있다.

우리대학은 비교적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 질적인 향상을 기하면서 발리 성장한 대학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인 필요성과 요청에 따라 양적인 팽창이 현가피하게 되었다. 작년에 2부가 신설되고 금년에 음인불교가 신설되었다. 이제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양적인 성장과 동시에 질적성장을 기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차분히 내실을 기하고 교육내용을 강화할 때다. 보다 알차고 실속있는 대학으로 성장시켜야 할것이다.

우리 전외대인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자 옷깃을 여미면서 노력해야 할 때다. 대학은 학생·교수·경영진 3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3자가 각자 의무와 권리를 존중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3자가 조화있게 협력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노력할 때인 것이다.

이제 학원에 자유화와 민주화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 남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질서와 대화를 통해 우리 대학이 민주화되어야할 것이다. 어떠한 폭력이나 강압도 민주화의 역행이 될뿐이는 일은 없다. 과거의 잘잘못을 시비하기보다 앞날의 발전을 위해 서로 동감을 넓어놓고 의논을 펼때이다. 서로간의 입장은 다르지만 학교발전이라는 큰 목표는 같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 외대인들은 일치단결하여 민주화의 방법으로의대발전에협력해야했다.

1980년 4월20일

학장서리 조 규 철

외대 학우 여러분!

외미 깊은 이 사월에 또 한번의 생일이 돌아오고 뿌리를 깊이내린 미네보바에 나이테가 하나 더 형성되었읍니다. 1954년 4월20일, 불과 5개 어학과로서 출발한 본 대학이 26년 동안 성상 (星霜) 의 노정끝에 오늘날의 외대로 「발바름」한것은 발전적인 미의 당연 (當然) 이며, 이러한금정하에 미래의 「파로 설정」이제 시립수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대는 주저할 수 없는 성장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 투입 (投入) 된 모든 분들께 격려없고 충심의 말로써 기인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허나 그성장과정과 질, 양의 결과론적 비교는 편견적 외형으로 귀착되었으며 그결과 우리들은 「주체」에서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렸읍니다. 즉 시대와 자기 모순의갈등을 야기한 현실이 우리들을 유아기적 의존과 타성에 연연케하여 외대 역사의 본질을 박탈해 버리던 것입니다.

대구나 현재 떠밀려진 상황 (狀況) 을 직시해볼 때 그것은 과거부터의 본질적 근원에 연유한 복합적 상황이며 그 상황을 회피할 책임과 여유가 우리에게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선배들로부터 부여받지 못한 이념과 소신의 퇴색은 시간속에 묻어버리더라도, 금일 커는 「광복」의 열람과 초조의 시간이 지난 후 환희와 희열이 도래하는 것처럼 창조력 재발전을 위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못은 있되 형동으로 옮길 수 없었던 그 변질 신념이 「민주화」와 「자율화」의 근본 미혹일 수 없으며, 그러기에 과거 대학 (大學) 의 본질이란 지금 거든할 필요가 없음만큼 단정적으로 그의미를 상실 (復失) 하였읍니다. 사학 26년,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이나 진정한 인재의 보고 (寶庫) 로서 국가 대계의 발판으로서 외대는 체도에 진입해야하며 그 일정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일련의 진통은 순간의 아픔일 뿐 미래의 삼심 (塞深) 인 것입니다.

외대인 여러분!

직일적 대학 체제 모순의 시대는 분명히 지나갔읍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찬 도약만이 남았읍니다. 그 도약의 발판은 우리가 되어야하며 그 제들과 멋가에 의한 외대 발전은 먼 훗날 우리들의 노안 (老顔) 에 분명개 희되어질 것입니다. 당장 개인의 장제에의한 피상적 발전이나 자신의 내재화적 고양의 발전이나의 분기점이 바로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따른 발전의 척도는가 늡써이 지는 것입니다.

진리·정화·창조라는 근본 이념은 어떤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해곡되어질 수 없는 외대정신의 정기이며 그것이 전외대인 가슴속에 이식 (移植) 되어 질때 분명 우리의 꿈은 부풀하고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26년동안 자라온 정년의 대는 그 결정을 앞아 발산되어야하며 시대가 초래했던 혼돈과 편견적 사고방식을 지양할 때가 온것입니다. 또한 순수한 학문열역 (力) 의 어떠한 침해나 편법도 문대학 사회의 발목를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순수상아탑의 「보존」과 「전통」만이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려분!

발전의 소지는 상대적 피로를 야기시킵니다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면면히 내려온 외대의 백학을 찾고 가슴속의 자부심과 긍지를 배양합시다. 이제 항구를 떠나 학문의 바는 흐르고 있읍니다. 어떠한 병폐으로도 항로의 변경은 있을수 없으며 학문 추구와 전인적 형성을 향한 순풍의 물을 발때 피안의 언덕은 결코 먼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오늘의 외대가 있기까지 그늘에서 밤없이 도와준 많은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 4월20일

학생회장 윤 용 근

외대는 분명히 발전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전이 타의에 의한 피상적 발전인지 혹은 내재적 의식이 고양된 결실인지에 따라 진정한 발전의 척도는 가늠되어 지는 것입니다.

## 인터뷰

# 80년 외대—삼 처장에게 듣는다

사회: 곽 해 선 <본보 편집장>

▲사회: 세분처선 현재 년뛰기의 학원에서 제반 학사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특히 이번에 조교부처장님께서 학장서리로 임명되셨고 서처장님, 이처장님 모두 신임이신데요. 먼저 조처장님이 부임학장이 오실때까지 학사전반에 걸쳐 중점을 두려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조: 중요한 시기에 학장서리직을 맡아 어려운 점이 많지만 모두, 학사행정 분야에 있어서 당장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가다듬어 정진해인 개혁을 이루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학생, 교수, 학교당국, 재단이 서로 자중하며 반성해야 할 시기인 만큼 모든일에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것 같읍니다.

조 규 철
<교무처장>
지금은 학생, 교수, 학교당국, 재단이 서로 자중하며 반성해야 할 시기인 만큼 모든일에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해요.

2부행정을 하시면서 당면하는 문제가 많을것 같은데요.

조: 일년중 교무행정은방학기간및 학기초가 제일바쁘죠. 그리고 그시기가 지난뒤에는 어느정도 정리가 된상태이고 보면 별로 큰 문제는 없읍니다.

알다시피 신입교수 충원을 22명으로 계획했었는데 그중 12명은 확보가 된상태고 나머지 10명도 가을중에 모셔올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전임교수 확보문제는 학교입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시업안에 확보하는 것도 중지만 유대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라고봅니다. 또한 현재 각과를 중심으로해서 실력있는 교수를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노력하고 있는중입니다.

▲각과에 전임교수보다는시간강사가 많은것이 현실인데요.

조: 시간수에 따른 교수비율은 약 50%로 시내타대학들과 비교해 볼때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본교 전임교수가 분포수업까지 맡고있고 시간강사를 확보하는데 따른 어려움 (시간강사를최피하는 현상) 때문에 전임교수가 과중한 시간을 맡는데서 발생하는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을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인 보완책을구상하고 계시는지….

조: 본대학이 실험대학으로 되면서 총 이수학점이 140 학점으로 되어 20학점이 줄어들었죠. 그 줄어든 학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주로 전공과목보다는 교양과목이 희생돼왔죠.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재검토해서 전공필수과목을 줄이고 선택과목을 늘리며 시간표 짤수 있는 전공과목은 줄여야 하겠지요.

▲교수가 사무처장직을 맡게 된것이 본대학에서는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님에 사무처장직을 맡게 되면서 사무처행정에 관련해 나름대로 미리 생각해두신 바가 있을것 같읍니다.

이 창 복
<사무처장>
우선 정해진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세부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직은 사무처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모표는 상태이며 어떻게 해야만 일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만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사무처장직이 정열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닌만큼 고수보시의 이성적 관단력과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기본자세로 하여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학에 있어서 사무처행정의 질적, 내용적 변화는 시대적요청으로 제기되고있는 문제인데요. 그러한 「시대적 요청」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것으로 보십니까.

이: 우선 사무처라 하면 재단과 학생, 교수간에 일컬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사무행정은 크게 재정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으로 나눕 수 있죠.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에 관계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이 발생하게된 문제를 근원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며, 운영적인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최대적소에 배치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생각한다니다.

▲과거 사무처행정에 어려가지점 힘합리한점이 있었기에 그 개선이 「시대적요청」이라는 명제로부각되고있다고 봅니다. 기존제도에 따라 사무처행정을 운영해 나갈때 아주 합리한점 교수님의 「양심」이나 「양식」과 마찰이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요. (웃음)

이: 정해진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세부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내외적으로 상황이 변한 현시점에서 학생처는학생활동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계하는 중추역을 맡는데요. 서처장님은 앞으로 학생처의 운영방침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서: 장의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은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며 학생처는 과거의 일방적 지도방법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힘의를 통해 지도하는 입장이 돼야 할것 같읍니다. 또한 그외장학금지급 확대, 학내학생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해서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것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일을 해 나갈가 생각합니다.

▲「협조」나 「협의」라는개념은 그동안 학생활동에 있어서 정상적인 의미로 쓰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데요.

서: 학생들이 요청하지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결대 관여하지 않는 입장을 취할겁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학의로 눈을 돌려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학생처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서: 일단 협의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및 양심과 일치하지 않으면 도와줄 방도는 없지만 일단 그러한 사항이 일치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지요.

▲하여튼 학내문제를 조용히 해결하자는 것이 교수 학생들의 원칙적인 이야기들이니 제단, 교수, 학생 모두가 이 사실을 지각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모두교수로보태진 세처장님이 서로 긴밀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정리: 이랑영 기자>

## 인물산책

▲마음의 상처가 다시 낫고 깊은 원한도 사라질 날 온화한 정서를 지닌 원이 다시 내려 오게 됐다. 이달에 5 원이 노예전 시인이 있다. 시나간 4 원이 「원인」했다면 그것은 이제 이야 이두을 우리민사의 뿌리를 흙이 볼수 있게된 사람의 아픔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와 원에 부한한 이국 (異國) 정서의 꿈이리가 이보 옥 자도 (口碑) 마다은 우리의 농담에 서이 입에서 입으로 옮기다보면 사실 역시 잔인하기도 하다.

▲4 원이 가면 오면 5 원이 오는것이이의 시간도 보 (寶) 의 시간이 흐르다니 그이 오는 5 원에대해 우리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는 것은 우리만의 4 원이 주는 여운이 5 원을 우리는 기원에 더욱주는 의미가 크기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과 계절을 비교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유년기의 봄과 청년기의 여름을 생각한다면 5 원은 봄의 절정과 여름의 시작에서「미 정」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절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완성의 보물 얘기하는 사람들이있다. 이미 자비로 남에는 저절이 가는 길의 보슬만이 보일 뿐이다. 다만 부 힘을 향해 치다는 미완성의 상태가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이 유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미완성」이 제이 (世人) 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성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5원의 눈부신 재앙이래서 이제 주 모금을 마셔가는 고사이 일깨워 보면서 미완성의 멋을 다시 느끼는 것은 한결할 수 만은 없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강한 애착이 심층에 깔려 있음도 그 이유일 수 있겠다.

▲우리가 품 담고 있는 이 세계와 또인간 그자체가 「미완성」이고 「부조리」한 것이라면 「완전한」 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의 행위가 어쩌면 지극히 부질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완성인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에 대한 인식이순응 (順應) 으로 기울어질때 그것은 나약한 숙명론 내지는 패배주의적 감상만을 불러 일으킨다.

「시지포스」의 형벌에서 미련함을 발견하기에 앞서 온갖 「부조리」와 「악」에 대하여 부정하고 또 부정하는 불굴같은 정신의 발견이 있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신비감의 부정이 그렇듯이 헛되으로 끝아오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상황논리에 매몰지 않고 순수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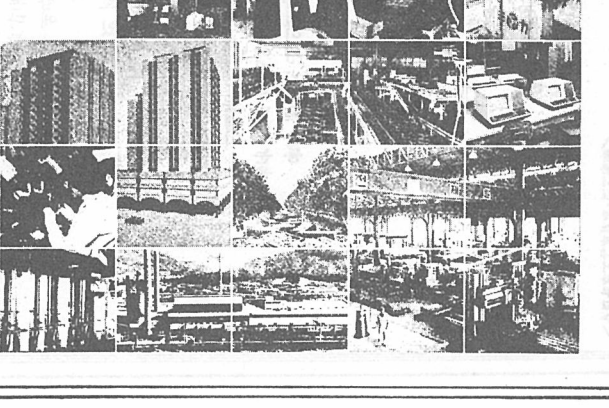
## 5 월 에…

# 두산그룹은 80년간 축적해온 힘을 80년대 복지사회 건설에 바치겠읍니다.

모두가 잘 사는 복지사회의 건설, 그것은 80년대를 맞은 모두의 소망이며 또한 두산그룹의 염원입니다.
두산그룹은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영체로 뿌리를 내린이래, 경제발전을 통한 번영의 실현과 복지사회의 구현을 기업의 사명으로 80년의 굳건한 전통을 쌓아 왔읍니다.

이제 두산그룹은 무역, 기계, 토목·건설, 전자, 유리, 농수산, 음료 등 주요산업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서 80년대 복지사회 건설에 그 축적된 힘을 바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두산그룹의 소망은 모두가 잘 사는 복지사회의 건설입니다.




斗山 斗山グループ

斗山産業株式会社 | 斗山機械株式会社 | 斗山窯業株式会社
東洋麥酒株式会社 | 斗山유리株式会社 | 韓国오크工業株式会社
株式会社合同通信社 | 斗山農産株式会社 | 韓国쓰리엠株式会社
東山土建株式会社 | 株式会社오리콤 | 斗山製罐株式会社
濱陽食品株式会社 | 斗山開発株式会社 | 斗山穀産株式会社

# 교수·학생 간담회 열려

## 「교수협의회」구성이 선행돼야—교수 학생—「교수·학생협의회」구성 요구

### 재단문제·교수문제등 광범위한토론

○… 학내 제반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교수·학생간담회가 5월1일 오후 3시 조규철학…○
○…장서리를 비롯한 40여명의 교수단과 총학생회, 과회장단등 학생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회…○
○…의실에서 있었다. 이 간담회에서 학생대표들은 재단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교수문제해결, 교수교권확립…○
○…을 위한 「교수·학생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교수측은 「교수협의회」조차 아직 미표심을…○
○…가질만큼 확실히구성되어 있지 않은 현상태에서 「교수·학생협의회」의 구성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재명…○
○…학생처장은 이에 덧붙여 현재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므로 「교수협의회」부터 조속한 시…○
○…일내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날 3시25분부터 이범선교수(교양학부)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규철학장서리의 인사말에 뒤이어 윤용근총학생회장은 「교수·학생이 서로의 앙심에 어긋나지 않는 이성적인 대화를 나눌자」을 강조했다.

간담회로 들어가기앞서 본보 곽혜선편집장은 사회자 이범선교수의 요청에 의해 최근 학내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다.

이어 학생측은 먼저 최란복학장이 재단장관의 개정의사를 밝힌지 전대사임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에대해 조규철학장서리는 「최학장은 입기만료에 따라 명예로운 퇴진을 한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어용·무능교수 문제를 거론하자 「어용·무능교수는 개인적인 차원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밝히고 차라리 불참심·무성의교수라는 비판은 충분히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들은 본대학의 학풍이 「무능」의 기준은 사치하더라도 어용교수는 과거 정치체제에 대한 어용보다 재단에 대한 어용이 더욱 큰 문제이기때문에 거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수는 자신의 최근 「교수입용계약서」를 예로 들면서 교수가 「지도교수제」와 결부된 학생의 「훈육」까지 책임질 수 없으며 이를 명시한 「교수재임용계」와 같은 교권침해요소는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필요하다면 「교수·학생협의회」구성도 할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해 학생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학생측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해결은 재단문제가선결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전제하고 교수들이단결된 힘으로 이의 선결에앞장선다면 학생들은 이를 전폭지지할 것이며 나아가 「교수·학생협의회」도 구성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들은 기왕에 발표된 「교수 결의문」이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교수결의문의 8개항은 하나씩 연쇄적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수·학생간담회는 2시간 반동안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진행되었으나 학생들이 의도했던 「교수·학생협의회」구성은 무엇한 결정을 보지 못했고 최학장사임건도 의견일치를 보지못한채 다음 이상의 언급이 없었다.

담지 조속한처리는 후임학장선임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결정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학회성을 81개 신고

## 서어클룸 51개·상당수 부족

30명이상의 회원명단과 금년도 운영계획서를 제출한81개의 학회·서어클에서 가입한 회원은 학회가 1251명 (2부 194명포함), 서어클2252명 (체육서클 341명, 2부 322명포함) 등 총3503명으로써 전체학생수의 약70%가 학회·서어클에 가입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정원수곡보, 서어클룸배정등을 의식한 복수가입학생이 다수포함돼 있는것도 엿볼수있다.

총학생회는 현재 신고되었거나 추가신고예정 1개클포함, 82개의 학회·서어클등에 대한 서어클 룸 배정의 미체택인 기준을 밝혔는데 현재 사용하고있는 룸은 모두 41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에서는 학생회관 2층 장의실을 이미 학교당국과 협의, 서어클룸으로 확보하고 있고 사회과학관 지하의 4개 룸을 8개로 분리 배정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최소한 51개의 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룸」이 확충된다해도 당분간 학내의 서클등 부족현상은 벗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에서 밝힌 룸 배정기준을 보면 법외학생인 학회와 서어클에 우선하여 유사학회 서어클의 통합을 유도하거나 룸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며, 기존 서어클은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의 활동계획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것이라고 한다. 또 총학생회는 복정이어을 유효하거나 복정 소수 학생만을 위한 실적으로 거론되는 학회나 서어클은 룸배정에서 제외될것이라고 밝히고 최대한 많은 학회, 서어클이 룸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했다.

작년에 서어클룸 등록원학회는 협학회, Time Newsweek 시사연구회, (당시, 현재는 분리). 이슬람문화연구회, 국제관광비교연구회, 영미문학반등 5개학회와 각부리학회등 과거 비공식적으로 활동한학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공해 신규발족되었다.

서어클은 가연극 연구회만을 비롯한 기존의 21개 서어클이 신고했으며, 22개 서어클이 새로 신고했다.

작년에 서어클룸 등록되었던 「세타음회」와 「스키반」은 서어클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그의 신고신청을 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0여개의 학회, 서어클은 학내 비공식 서어클로 인정되나 총학생회의 보조와 서어클룸 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등록 학회와 서어클을 유형별로 보면 학회는 순수학술이념학회 11개, 지역연구학회 14개, 종교권계학회 3개등이 있었으며 서어클은 예술·취미서어클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종교, 영어회화관계가 1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학회를 중심으로한 서어클활동의 새 방향이 정립되고 있다.

# 제13회 모의 올림픽

## 5월28일부터 6월4일까지

개교 26주년 기념 제13회 모의 올림픽이 당초 예정보다 한달보름정도 연기된 오는 5월28일부터 6월4일까지 7일동안 거행될 예정이다. 28일 본대학 운동장에서 거행되는 개회식을 선두로 구기, 육상등 남녀 직20개 종목의 경기가 벌어지게 되는 이번 모의 올림픽의 개회식 당일에는 선수입장과 오륜기게양, 선수선서등에 이어 성화 점화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며, 폐회식은 6월4일 오후 4시에 거행된다.

금번 모의 올림픽 종목과 경기방식을 보면 남학생은 축구·야구·농구·핸드볼 배구(6인제) 등의 기존 구기종목에 새로 궁도(10m)경기가 첨가되었는데 이중 4종목을 택해 출전하며 씨름과 줄다리기는 작과 공히 필수제로 참가해야 한다.

여학생은 소프트볼, 농구, 배구(6인제) 핸드볼에 박구 궁도(10m)가 새로 추가되어 이중 3종목을 선택 출전하여야 하며 남녀구기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육상경기의 경우 남학생은 10km 단축마라톤, 100m경기, 800m릴레이등에 출전할 수 있으며 여학생은 6km단축마라톤, 100m 경기, 400m릴레이에 출전할수 있다.

이번 모의 올림픽에는 과대항 교수 400m릴레이경기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남의경기로는 학내 3개 사무처 도서관, 출판부, 신문사, 학력원, 학문단등 4팀을 구성 배구(9인제)경기가 펼쳐진다.

시상으로는 우승 학과에는 학장배, 2, 3위 학과는 각각 대학원장배, 동문회장배가 수여되며, 여대생 각이 입장상이 주어지고 특히 이번에는 응원상이 추가된다.

한편 입장식 장일은 전면 휴강하며 폐회식날은 오후수업을 휴강한다.

# 총학생회 출범 벽두부터 진통

## 자체문제, 여학생회 재정분리등 난항

4월30일 「80학년도 총학생회 운영지침」 발표를 전후하여 총학생회는 자체의 문제와 여학생회 재정문제, 과회장단과의 의견 불일치등으로 인해 출범초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 자체내 문제에 관해서 한관계자는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니나 일월간의 토론이 잘 맞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는데 과회장단이나 학생회 사정을 알고 있는 이들의 말을 빌린면 학생회자체에선 큰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여학생회측은 여학생회 예산이 총학생회예산의 일정비율을 독립예산으로 학생회 측에 명시, 여학생회가 완전독립적인 기구로 구성되어져야할 것을 총학생회측에 요구했다. 이에 반해 총학생회는 일정기간의 여학생회예산안을 총학생회장의 재가무에 확정, 자치적으로 운영토록하는 방안을 주장하고있어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돼고 있다.

여학생회에서는 당초 임시학생회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학생회의 완전독립을전제하고 여학생회장선거를 치루었으며 75년이전의 학생회칙에도 반(半)인구비례에 의한 비율제(70년도 12분의1)로 여학생회 예산이 분리책정됐던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수준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여학생회측에서는 「현재 학내의 여학생인구는 전체학생의 10·6%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비례에 따르면 9분의 1이 되어야 하나, 여학생이 총학생회에도 소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때 10분의 1이나, 11분의 1정도의 예산비율제가 타당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경교 여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운영지침에 관해 총학생회와 과회장단사이에 약간의 의견 불일치가 보이고있다. 나 실제로 여학생회측에서제정한 예산안이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 여학생회는 구제책을 찾을수 없게 된다. 이는 여학생회의 존폐를 좌우할만한것으로 총학생회의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심방국부회장은 「필수 있는데로빠른 시일안에 여학생회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일 발표된 총학생회 운영지침에 관해 총학생회와 과회장단사이에 약간의 의견 불일치가 보이고있다.

# 제6대 여학생회 발족

## 총무·문화·연구·운영 4개부서

제6대 여학생회가 지난25일오후5시 학생회관 여학생회실에서 발족식을 가집으로써 만 6년만의 여학생회출범을 보게 되었다.

지난 4·15전기에서 선출된 서경교여학생회장은 당선직후 인선작업에 착수, 지난 24일 4개부서 8명의 부·상장을 선임한 바 있다. 새로 구성된 여학생회는 과거에 총무·문화·연구·공보·미화 5개부서로 조직되었던데 반해, 총무·운영·연구·문화의 4개부서를 두었다. 각 부서의 사무및 역할을 살펴보면 총무부는 재정사무및 각부서의 총괄을 담당하며 운영부는 섭외활동과 행사전반을 관장하고, 연구부는 세미나를 비롯한 학술행사를, 문화부는 여학생 복지및 여학생반의 특자계획 행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연구부에서는 「여학생학회」를 목적 주원, 전반적인 여성학제를 탐구하는한편 제반 사회문제를 연구하여 여성의식을 함양시키는 모체로 삼을 것이며 아울러 여학생회지인 「행랑」도 학술지의 성격으로 개성·보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서경교회장은 편집필들이 앞으로 여학생활동의 촉석이 될수있는 입무를 완수해갈것을 강조하며 「밝은 여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포용하는 태도를 지향해야할 터」라고기본자세를 주지했다.

또한 이번 여학생회의 목표가 「여학생들의 의식함양」인만큼 이를 위해 법대학적인 여학생연합 조직구성을계획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로 선임된 여학생회의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장1명 차장 1명순)

▲총무부: 김영숙(G·3), 김현숙 (S·2) ▲운영부: 이보배(EE·3) 한혜규(EE·2)▲연구부: 박남숙(E·3) 이경숙(EE·2) ▲문화부: 김애자(Tu·3) 신경아(F·2).

# 교련, 2학년까지 주2시간

## 면제혜택·병영훈련 현행대로 실시

정부는 5월1일 그동안 문련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학생군사교육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대학생군사교육의 교련교육을 현재의 주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대상학년도 종전 1, 2, 3학년에서 3학년은 교련 교육에서 제외시켜 재학중 2년간만교련교육을 받도록했다. 이에따라 교련교육시간은 종전 총 36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련교육시간의 단축에 관계없이 종전1년 교육에 2개월 복무기간 단축혜택이 3개월로 늘어 2년간 교련교육에 최고 6개월의 재영복무기간단축혜택을 받게되어있다.

한편 병영 집체훈련은 올해에 한해 현행대로 실시하고 금년말까지 기공한한 훈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훈련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학생군사교육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대학생군사교육의 교련교육을 현재의 주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대상학년도 종전 1, 2, 3학년에서 3학년은 교련 교육에서 제외시켜 재학중 2년간만교련교육을 받도록했다. 이에따라 교련교육시간은 종전 총 36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련교육시간의 단축에 관계없이 종전1년 교육에 2개월 복무기간 단축혜택이 3개월로 늘어 2년간 교련교육에 최고 6개월의 재영복무기간단축혜택을 받게되어있다.

한편 병영 집체훈련은 올해에 한해 현행대로 실시하고 금년말까지 기공한한 훈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훈련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표명한 것은

## 개교 26주년을 맞아 진단 해본다——

# 창조적 미래를 위한 오늘의 진통

### □외대 90년대를 향한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특집기획□

외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대학내의 민주화, 자율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있다. 이는 급팽창이 점철되어온 「민주의지」의 벽이 근간이되어, 연모된 현상을 자연스레 받아들일수 있을을 시사한다. 그동안 겉적장적으로 팽욕할만한 상전을 지속해온 년 대학의 경우도 거강이래 지금까지 학내에 머물던 구악(舊惡)들을 하나 하나 조용히 척결해 나가는데 힘을 합쳐왔다. 학생의 본분을 이탈함이 없이 비교적 냉정한 자세로 일의 선후를 가려 해결해온 점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모범적이었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짚어거슬때 우리는 지금 (以降) 이 그쳐서는 안되며, 아직도 깊게 노력해서 보완해야할 미비점들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에 본보에서는 최근 학내에서 떠져나오는 문제들을 짐검, 90년대를 향한 사학 「외대」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자 한다.

**사제간의 불신임권(圈) 확대는 대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학부를 중심으로 2부대학과 본보, 3개의 대학원(일반대학원, 통시통역 대학원, 무역대학원), 외국어연수원 등을 3한 어평의 캠퍼스에 수용하고 있는 본 대학은 이미 그 양적 위왕이 타과대학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양적팽창에 비해 학내의 제반 시설이나 교수사정은 크게 따라가지지 못하고있어 심절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예는 단적으로 교수 자신에게 할당되는 강의 시간의 과중화, 학부이외의 수업과 중복되었을때 학부학생이 휴강하게되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겠다. 교수와 강의, 교수와 연구실적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자의 경우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수개인의 연구시간 감소로 연구여건이 결여되거나, 파중한 수업시간으로 강의 준비가 미흡하게되는 폐단이 생기게되며, 강의 준비의 미흡은 오래앞어 학생의 원한의 대상이 되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외국어학부의 한 교수는 주당 27시간의 강의를 맡고 있다고 한다. 위와같은 사정을감안할때 이러한 점은 문제가아닐수 없다.

원래 본보부의 규정에 의하면 학내 학생수와 전임교수와의 비율을 지방의 경우는 현재의 35 : 1에서 30 : 1로, 서울은 27 : 1에서 20 : 1로 각각 그 범위를 축소함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본 대학의 경우는 학부학생만 5천여명이란 숫자에 전임강사이상의 교수는 고작 143명에이르고있어 (1979~1980 외대입학참조) 그 비율은 약 35 : 1로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부분의 대학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것은 사실이나 학과별로 볼때 전임교수가 단 1명뿐이고 여타 강의는 모두 시간강사로 운영하는 수준의 과도 있어 교수의 중원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더해 한 전제자는 교수의 중원은 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체로보 한국에 있어서의 교수사정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 강의 내용에 맞는 적임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본대학에 있어서의 교수중원 문제는 1981학년도에 본보가 음인으로 출거상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본보는 본보와 평정 적으로 독립체제를 유지하고있어 독립 전임교수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는 하나 「전임교수」의 명칭은 본보 교수진에서 동원을 해주어야할 형편에 있다.

이러한 형편과는 달리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부농, 어용등의 교수문제는 현재 학내에 커다란 반향을 일러 일으키고 있다. 이미 진통을 겪은 학과도 수습책에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며 학생들이 들고나오는 「비양심」 운운하는 문제는 바야흐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의 사도(師道)를 실추시켰으며 교권확립이란 명제는 교수측에서 들고 나오기가 부끄럽게까지 되었다. 또한 검찰을수 없이 쓸아져 소문과 진실이 「믹스」된 채로나도는 그 비리(非理)란 것에 경악을 금치못하는 학생들은 지금현재 도금 상린 분위기에 스스로 용분책 있는 것같은 우려를 지울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실적인측면을 고려할때 학생, 교수 양자간에 서로 이성으로 처리할수 있는 한계내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소위 「어용」이나 「무능」 「비양심」 교수는 당연히 대학에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문제는 대학내에서 만큼은 적어도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부농」 따위의 말이 감히 「교수」라는 이위에 붙게되는 구조적 요인은 교수양성과정이나 기용절차에 그 원인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묵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어려 사학(私學)의 경우 임금인해 공인되다시피한 「공개채용제도」의 유명무실화에서 비롯된다.

잠수폭 교수, 학생간의 불신임권(不信任圈)이 확대되고있다. 그러나 사제간의 불신임권의 확대는 대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수있겠다. 이제는 일단 교수, 학생 모두 대오를 정리해야 할 때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위한 「대화」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마련, 교수, 학생간의 고유한 권위를 되찾아야하며 이러한 신뢰를바탕으로 「대학의 회복」에 매진해야 할것이다.

**재단은 사학의 근본이념을 옳게 파악, 바른운영을 해야한다.**

2부대학 설치와 용인본보생의 입시수용 최근 계속책으로 등가되어온 각과의 정원, 계타가 급변에는 결원에따른 충원이란 구실로 편입생까지 받아들여 이른 캠퍼스는 개교이래 사상초유의 인구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학내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제한된 캠퍼스내의 제반 시설물은 이는 것이나 초만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태는 본교의 이전(移轉)이후에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작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 1. 2 학년 840명을 수용하고 있는 2부대학은 내년이면 3개 학년으로 된다.

따라서 내년에 본보생이 용인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빠져나가는 본보 학생수 만큼 2부 대학 학생들이 들어와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한 캠퍼스의 한심사태면상은 도서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평상시에도 연일 인파가 그치지 않고 있지만 특히 시험기간 중의 도서관은 입추의 여지가 없음이 현하다.

과거 철마다 오고가는 추조처럼 시험때면 자리를 먹을다가 시험이 끝나면 미련없이 자리를 비우는 학생들로 인해 「좌석만다」는 표현이 허물되면 도서관이 차려부터는 종일 붐비고 있다.

1종의 좌석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과 2층의 제1열람실, 3층의 제2, 제3열람실을 개관하고 있는 도서관은약 800석의 좌석을 확보하고있다.

신학기에 들어서는 4종의 제4열람실까지 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1000여석의 좌석으로 5,000여명의 학부학생들에게 5 : 1의 골로 좌석이 배정되고 있는 셈이다.

작년 10월 1일자 본보의 각 대학 도서관 실태조사에의하면 타 대학에 비해 5명에 1석꼴은 그리 양호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및 각단과대학별로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대학의 경우에는 분관(分館)의 효능을 톡톡히 살리고 있어 학생들이 일정시간에 폭주하는 경우와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전임 최한복학장은 이러한 도서관의 만원사태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 개방한 4종 열람실도도 학생수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 도서관의 유효한 열람실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분석에 의하지 않고도 현재의 도서관이 5천여명에 이르는 전교생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본보생이 용인으로 나간다고 해도 어전히 도서관 수용능력은 미흡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아쉬운대로 가건물이라도 짓는 방안도 고려함직하다.

서어졸은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이외의 자치활동능력을 배양할 계기가 된다.

올해 들어 종학생회에 등록한 써어클은 수는 총 81개라고 한다. 이곳 서어클을 모두 허가해 주는 경우 81개 서어클 구성원의 활동근거지가 될 서어클등 역시 배부족현상을 보일 것이 자명하다.

설사 학생회관 2층에 도열해 있는 강의실을 서어클 등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아무래도 다목적을 갖고있기 하나를 더 있어야 할 필요성은 그때서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그러한 다목적을 건물을 세운다고 할 경우에도 이미 여지가 없이 들어찬 캠퍼스의 어느 곳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의 반응이 지배적일 것이다. 이러한 구상과 함께 실부에서는 학생회관을 증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案)도 나오고있다.

이미 학부 학생들은 그동안 기본시설의 보완없이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온 학교측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불만을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이 시설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학생처와의 견련한 상호관계가 관건이 된다. 사무처및 학생 학교당국부처의 배려와 학생처측의 책극적인 의욕이 필요할 것 같다.

**주먹구구 식의 행정은 배제돼야하며 일의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전기대학화 문제**

이번 학기에 들어서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알려졌던 전기대학에로의 전환문제가 언제부터인지 말 꼬리가 잡혀어졌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전기대학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의 의견을 모요면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반대이유를 조성했었던 전기대학에로의 전환문제는 그동안 별다른 진척사항도 변동사항도없이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다.

애초에 편입시험 사정회(1980. 2. 22)때 전임 최한복학장에 의해 발표됨으로써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던 전기대학화문제는 교수회의에서 잠만을 들어 기결되었는데 후에 알려진바로는 지난학과는 원칙적인 합의만 보았을뿐 구체적인 방법론상의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전기대화하는데 합의를한 결정사항은 1981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것처럼 발표가 된바 있다. 후기대이기 때문에 가지는 엔디티이나, 올해 들어 폭파전쟁의 대폭적인 곡대등으로 학내에서 이미 주수된 학생들을 유치하는등 인시제도의 이변으로인해 전기대학화문제의 결정은 일견 타당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볼이켜보면 전기대학화의 성급한 결정은 문 학생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표부한채 학생측의 눈치만 보고있는듯 싶다. 전기대전환문제의 경우는 본대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인만큼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 검토가 있어야 했다.

현재 전기대학화일표이후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들의 하나는 입시생들에대한 혼란이다. 이미 시중에 나돌았는 입시정보간지에는 본대학이 전기대로 전환한 것으로 나와있어 입시시즌에 다소의 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는 사부처인 시안(試案) 도없이 결정해놓고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 힘을 추진하지 못하고있는 학교당국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만일에 당국에서 시기적요로 전기대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 그러한 결정에 대해 학생들이 수긍할 만한 적절한 이유를 들어 설득을 하는 식의 책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실의 한 담당자는 현재 교무처에서 각 대학별 성격과 지능지수 등의 자료를 수집, 조사중에 있으며 학내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전의대생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낼 예정이라고 밝히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학생대표도 이에 참가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전기대로 선전이된 본대학 입시요강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책극적인 홍보물들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학교 발전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할 때 이를 받아들여 검토하는 학교 당국의 겸허한 자세가 아쉽다.**

**종합대학화 문제**

종합대학화 방안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78년 5월 전임 최한복학장과의 인터뷰에서였다.

앞서 밝힌 바와같이 본대학의 규모는 이미 종합대학의 규모를 넘어섰으며 현(現) 이론등 캠퍼스에서는 더이상 확장가능성이 없을 만큼 양적으로 팽창해 있는 상태이다. 더우기 심각한에서도 어려운 사학과 수준차를 들수있는 만큼 폭수의 학교로서의 성격을 살려 어느정도의 제도권 내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본대학이 종합대학화하지 않고는 이미 타과대로서 발전한계에까지 도달했음을 느낀 교수진과 재단측은 종합대학화를 위한 단기·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어려번에 걸쳐 시사한바 있다.

그것은 단기목표로 1~2년내에 본보 설치, 10년후 단계적요로 학부를 이전, 이론대파스에는 사부처와 2부처, 그리고 대학원만을 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대학이 종합대학화되는 문제에는 교육법시행령 113조 「대학교를 구성하는 4개 이상의 단과대학중 폐어도 한 개의 대학은 자연과학계열이 한다」는 조항에 의해 성립필수 였었다. 그러나 그 조문의 시정을 요구하는 반면 2차적인 방법으로 본보에 이공계열분야를 설치, 후에 통합하는 계획도 고려중에 있으나 현재 취하고 있는 방안은 본보에 기초과학분야를 신설함과 아울러 인문학부로 비보월학, 비보역사학, 비보사회학등의 학과를 증설하는 것을 신청했다고한다.

그러나 종합대학화의 경우도 본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음다 요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퍼스 이전문제**

종합대학화를 전제조건 용인에의 본보 설치는 설립 일년 후인 1981년에 새 보사를 지어 옮기게 된다. 장기적 요로 종합대학화를 목적으로 부지를 확보중에 있다고 말하는 재단사무실 관유의 학생은 「현재 확보 예정부지 80만평중 40만평은 이미 확보가 끝이 있으며 나머지 40만평도 단계적 요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확실한 위치는 밝히지않았다. 또한 그는 향간에 떠도는 부지매입에대한 부정혜인 소문에 「학생들이 루조건 제단을 욕매시키는 잔꾀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일축하고 그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재단측은 종합대학화나 본보이전에 대해서는 시종 단계적요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될것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피했다.

또한 본보의 신축건물 학공식은 오는 6월 경에 열릴 예정으로 연건평 3,500평 규모의 건물이 서게 되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장의실, 교수연구실, 도서관이 들어갈게 된다고한다.

그러나 내년에 본보가 용인으로 옮겨갈 경우 본보나 전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종학문제, 기숙사 시설, 교수중원문제가 크게 대두되고있다. 서울도심권에서 가까운 거리에있고자 하지만 도로포장이 되어있지 않으며 대부분 학생들의 거주지가 서울인 점, 교수들의 출강에 따른 본보의 교수문제 따위가 아직 구체적인시안이 없는 채로 남아 있다.

**학생, 교수, 경영진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질때 외대의 무궁한 발전은 약속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몇가지 문제점을 이 대해 살펴보았다. 개교 26주년을 맞았어 학공식표에 있는 성년 의미의 상조적인 미력의 설계를 위하여 오늘날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지적, 시정해 나갔요로서 50년대를 향한 도약의 기틀을 다져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계획되었던 본 기획기사가 실공취재가 되지못했던 한계를 시인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몇가지로 요약해서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지금 크게 확대되어가고 있는 교수, 학생간의 이질화 현상이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확대되어 교수와 학생이 마주서게된다면 끝이없는 비극이 아닐수 없다. 지적되고 있는 교수는 물론이려니와 특근의 교수들에게도 요즈음과같은 현상의 지속됨은 곤혹스런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방동」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고집화된 풍토병(?)이 대학에서만큼은 발생하지않도록 당국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재단은 학생처내다수 교수와의 괴리감 극복을 위해 어느선까지는 개방됨 운영을해야 할 것이다.

학생, 교수, 경영진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가질때 외대의 발전은 약속될 것이다.


## 재단, 개방된 운영체제 갖춰야

### 전기대문제…학내 안정되면 설문조사 용의있어

### 종합대학화 위해 기초과학분야 신설 예정

### 재단 정관개정, 사립학교법이 우선돼야

옷을 바르게 입는 데 도움을 주는 글
뉴디시안 사람들의 옷차림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들이로서 적용될 수 있도록 몸기 위해서 신사복 "캠브리지"를 만들고 있는 지금 신흥양복주식회사 착용부터서 국내 최고 시무국의 시공 한도를 넘어 신사복의 모든 정보를 분석 정리해야 1979년에 이어 1980년 한 해 동안에 걸쳐 전국의 각 대학 신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CAMBRIDGE 캐브리지

신사복은 이렇게 입어야 합니다⑤

#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빛깔의 조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울리는 옷의 빛깔을 선택하려면 일단 빛과 모양 자신의 분위기 체격, 유행, 계절 감각, 옷 입는 목적 등 따져 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개 상식적 판단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또 거마다의 취향에 따라 그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신사복과 셔츠, 넥타이의 기본적인 배색 요령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판단과 기호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옷의 배색 요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같은 계열색 끼리의 배색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깊이 있는 방법입니다. 같은 계열의 색 중에서 셔츠를 가장 엷은 색으로, 조끼를 중간 색으로 저고리를 가장 짙은 색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흔히 저고리와 바지가 같은 천일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지만, 코오디네이트 슈트의 경우에도 많이 쓰이며 이 때에 바지의 빛깔은 조끼의 색깔을 따르면 무난하고 중간 색인 조끼가 빠지는 경우에는 셔츠의 색을 따르면 됩니다. 이 배색은 점잖은 느낌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초점이 흐려지기 쉬우므로 넥타이나 셔츠의 어딘가 한 군데에 시선을 집중시킬 포인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두 가지 색깔의 배색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요즘 들어 크게 유행하는 코오디네이트 슈트에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고리를 곤색으로 하고 바지를 회색으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때에 셔츠와 넥타이의 빛깔은 바지 쪽을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류색과 회색, 밤색과 녹색, 회색과 곤색, 흰색과 점정색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셋째로 액센트 배색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빛깔을 좋은 면적에 배치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 따뜻한 색계통의 슈트와 셔츠를 입고 찬색 계통의 넥타이를 매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계색이라도 명도를 극단적으로 변화시켜 보는 것도 멋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회색, 옻칠정색 따위의 무채색 바탕에 빨간 색, 오렌지색, 하늘색 등을 조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 웨어나, 단색조의 옷에 지리한 느낌이 들거나, 분위기를 바꿔 보고 싶을 때에 생각해 볼 수있는 방법입니다.

기본이 되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무채색과 세번째 가지 빛깔의 조화를 이루어 보는 것도 참만 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 나가는 센스에 따라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스로만의 멋을 창조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몇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스스로의 경험에 따라 자연히 터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기본 배색 요령을 완전히 터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차례에는 배색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캠브리지의 전가는 입고 활동하는 동안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CAMBRIDGE 캐브리지

▶삼정양복주식회사 ◎본사/서울특별시 중산구 이촌동 300-27 전화 796-4900, 793-8231~5 ◎롯데/롯데백화점 1층 796-2892 ◎롯데 매장/롯데백화점 1층 771-25 (3216) ◎롯데 아레이드 매장/롯데 1번가 107호 779-0786 ◎신세계 매장/신세계 백화점 3층 778-1739 ◎미도파 매장/미도파 백화점 3층 23-4637 ◎종로 매장/종로 17가 서울 동부 전화번 73-1829 ◎소공동 소공동 전화번 28-5866 ◎신촌 매장/신촌 조이시 서울신부 및 33-3979 ◎명동 매장/명동조 시장 상가번 26-4143 ◎영등포 매장/영등포 미조파 상가 2 수 388-2927 ◎인천 매장/인천시 내동 72-6233 ◎수원 매장/수원 상원 백화점 1층 3-7111 ◎대구 매장/대구 남일동 이가백화점 상가번 23-4639 ◎ 울이 매장/대구 동아백화점 43-9321~30 ◎부산 매장/부산 부평동 보보도 빌딩 22-3967 ▶신흥백화점 779-0786

▶이지모드(모나이)매장/롯데 롯데 쇼핑센터 3층 779-0733, 771-81(3216) ◎신세계/신세계 백화점 3층 778-2739 ▶서울시 전역에 프레리크 카드가 통용됩니다. / 아이레디안 미스프레스 ◎롯데 ◎ 프레인 미스프레스 ◎디어스 쿨럽 ◎프라◎롯데 프레리크 카드 ◎신세계 프레리크 카드 ◎미도파 프레리크 카드

# 자유 이땅에 영원한 빛을 위하여 <1>

최 명 관
◇승전대교수
(철학박사)

자유로운 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 사회를 향한 기본 조건이다. 자유와 함께 수반되어야 할 책임을 수행할 만큼의 자유조차 유보되어야 했던 시대를 지난 70년대의 한국사회가 체험하고 잠룡했기에 「자유」라는 명제는 이땅의 사람들에게 이상적 사회 건설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조건으로까지 인식시키게끔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전이라는 80년대의 국가적 사명 앞에 이 땅에서 자유의 구현을 위한 정지 (躊躇) 작업은 일 순간의 정지도 있을 수 없다.

「나만한 뒷받침이 스러져간 짧은 꽃사태」의 엄혹이었던 자유의 실험을 위해, 진정한 규준 (Criteria) 으로서의 자유의 이념과 조건, 그리고 그에 비춘 현실적인 장애물을 무엇이며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대학과 사회, 국가와 민족사의 발전을 염원하는 룸시대적 (躊躇代的) 인 가치관에서 비롯됨을 외심치 않는다.

이에 본보에서는 80년을 「자유의 해 (年)」로 정하고 그 주제별로 사계의 권위자로써 여금 집필을 의뢰 책임있는 논문을 게재하려 한다. 뜻있는 독자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

<편집자 주>

<목 차>

①자유—그 이념과 현실
②역사인식과 자유
③자유의 평등한 배분은 가능한가
④자유의 정치학
⑤자유를 위한 폭력혁명은 정당한가
⑥기독교사상과 자유
⑦자유로운 인간는 교육에 의해 만들어질 수있는가
⑧예술에 있어서의 자유
⑨학문과 자유
⑩언론과 자유
⑪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⑫에필로그 (파탄)

## 자유—그 이념과 현실

「자유」란 말은 여러가지 방면에서 쓰이고 있고, 따라서 그 의미가 여러가지다. 신체의 일부, 예컨대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팔이 부자유하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일종의 신체적 자유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도 신체적자유가 없다. 이때의 신체적 자유는 앞의 신체적 자유와 다르다. 또 우리가 어떤 곳으로 여행하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한다면 경제적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여러가지로 구속을 받고 신체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면 이 때에는 정신적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자유를 생각할수 있다. 그런데 「자유」란 말은 일반적으로 좀 막연한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일제 말기에 「자유와 평화」란 책이 우리 나라의 젊은 지식인들 간에 클럽 돌려지면서 읽혔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자들의 글이 실려 있었다. 그책 제목에 있는 「자유」란 말은 일본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따져보 이런 의미로 「자유」란 말이 일반적으로쓰인다. 다시 말하면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자유」란 말의 일반적 의미다. 「존 스튜아트 밀」(John Stuart Mill)의 유명한 저서 「자유론」의 첫머리에도 「자유란 정치적 지배자들의 폭정 (暴政) 에 항거하여 자신을 보호함을 의미하였다」라고 씌여 있다.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자유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자유라 할수 있을 것이다. 자유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밀」은 다음의 셋을 들고 있다. ①양심의 자유및 사상과 감정의 자유—여기에는 의견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가 포함되어있다. ②취미의 추구의 자유. ③개인들이 결합하는 자유. 첫째것은 사상과 학문과 언론의 자유라 해도 좋을것이다. 둘째것은 개인으로서 자기의 취미를 살리며 자기나름의 일을 추구해갈 수있는 자유다. 셋째것에는 결혼의 자유도 포함되겠고 또결사 (結社) 의 자유도 포함되겠다.

「이러한 자유들이 전면적으로 존중되고 있지 않는 이때한사회도, 그 정부 형태가 이념상 이른,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이유에 합당한 유일의 자유는, 우리가 타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선 (善) 을 빼앗으려 하거나 그것을 얻으려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려 하지 않는한 우리 자신의 선을 우리 나름대로 추구하는 자유다. 」라고 밀은 말한다. 이러한 자유에관하여 「밀」은 두가지조건 (條件) 을 제시한다. 그 첫째는, 자기 자신 이외에 타른 누구의 이해관계에도 관련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회에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하는 것이다.

「자기자신에 대하여, 즉 자기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하여 개인은 주권자 (主權者) 다」 들게는, 타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하여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사회가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사회적 혹은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던데 그렇게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개인은 자기자신에 관한 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는것들 중의 첫째것인 양심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자유다. 인간은 양심을 가짐으로써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양심을갖은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양심은 우리에게 옳바르게 살 것을 명한다. 그리고 또 자기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선한 일을 할 것을 명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러한 양심을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는 절대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일차 전쟁지 우리 나라안에서는 「양심선언」이란 말을 가끔 들었다. 일차나 양심이 억눌리어 아팠기에 양심선언을 해야만 했는가? 양심선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야 말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드러낸던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 그러한 불행한 상황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전체 주의 치하(治下)라 해도 거기에 개성이 있는한 그전체 주의는 최악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 무엇이든 개성을 뭉개버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든 간에 전체 주의다』

## 건전한양심에따라 행동하는자유 보장돼야

###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민주주의의 핵심

### 「정치적지배자들의 폭정에 항거해 자신을 보호함」… 고전적 의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나란히, 혹은 그 속에 사상과 감정의 자유가 있다. 개인의 사상과 감정에는 절대적 자유가 있어야한다. 이와 함께 또한 학문의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자유가 전적으로 향유되는 곳에서만 사회의 유기의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나라에서는 이 방면의 자유가 많은제약을 받고있다.

학문 연구의 자유에 관하여 한가지 예를 든다면, 「마르크스」의 『자본론』같은 책이 제대로 연구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법에는 이러한 책을 읽어서 인민다는 규정은 없을 것이다. 어떤 서점에서는 동구권 (東歐圈) 의 학자인 「루카치」 란 사람의 미학에관한 책이 팔리고 있었다한다.

이와 같은 어려 제약은 서구 (西歐) 어려 나라나 소위 자유진영의 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다. 간혹 공산주의에관한 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읽었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일도 있었던것 같다.

대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나머지 그 사람을 소위 말 정이로 몰아 처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혹 사게 된다. 반공이나 승은 공산주의에 관한 책을 읽는 사람을 탄압하는 것으로써 될 수 없다. 물론 이런 사람이 공산 정권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정치활동이나 파괴공작을 했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이런 사람은 국가의 안전을위하여 반공법에 의하여 처벌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은 한,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양식 (良識) 있는 세계의 압제 평하는 많이 듣기 싫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남의 비판을 전적으로 봉쇄하는데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초래된다. 비판이 없는 곳에 발전이 없고, 인문의 자유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꽃피지 못하며 또 올고 바른 나라가 서지못한다.

그런 곳에 독재가 자리잡고 부정과 부패가 독살거리게되고 국민들만 아니라 결국에는 집권자들 자신도 불행하게된다.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힘있는 자도 부유한자도 자기는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사실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우발하고 넓리 행은 나무로 자라, 낮고 떠있는 나무를 위에 높이 솟아올았고, 또 그 그늘로 이것들을 질식시켰다.

「밀」은 자유의 이념의 원리를 흠볼트에게서 찾고 있다. 흠볼트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활동한 독일의 훌륭한 정치가요 언어철학자였다. 밀은 흠볼트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인간의 목적, 즉 막연하고일시적인 욕망들에 의하여 시사 (示唆) 되지 않고, 이성의 명원하고 불변하는 명령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은, 자기의 여러 능력을 최고로 가장 조화있게 발전시켜 하나의 완결(完結) 되고 일관 (一貫) 된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이론뿐자유연설 (自我實現說) 이다. 이렇게 하나의 완결된 인간을이루려면 자기의 독립한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개성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개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하고, 또 상황의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관에 박은못이 한결같고 획일적인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개성있게발전시킬수 없다. 자유가 있고, 처해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다양하면 사람마다 활기를 얻어 다양면요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독창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게도 되고 자발적에 창조적 활동을 전개하여 위대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도 된다. 이와 같이 되면 우리외인간 사회는 매우 아름답고 매우 윤기있고며,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매우 사람답게 살수 있게 될 것이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그리고 상황이 획일적인 곳에서는 이와 반대되는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마큰까지 획일적인 체제가 강요되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유의 부인 (否認)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사상과 활동을 발살하고 집식시키려면 필요상 획 (劃—化) 의 제 쯩이 발휘되 씌겨졌으면 하는 것이 소망한 국민 전체의 간절한 소망이다.

「밀」은 개성을 극히 중요시한다. 개인의 자유를 남에게 해를 끼칠 때에만 제한되어야한다. 그리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이야말로 국민 (國民) 와 민족 (民族) 의 요람가는 본질을 가온데 하나다. 개성이 자유로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며 또 만들어진다.

그런데 역사를 통하여 개인들이야말로 위대한 것의 창조의 원천이었다. 『모든 현명한 것 혹은 고귀한 것의 창시(創始) 는 개인들로부터 오며 또 와야만 한다. 』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것을 창시하였다. 그럼에 이러한 개인이 나올 수 있으려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인류 역사에는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혹은 억압과 질곡 (桎梏) 속에서위대한 창시자가 나온 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국히 드물고 영웅의 시대에나 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그때서 『전체주의 사람들은 정말 언제나 소수요. 또 소수이기 쉽다. 그럼에 전체가 나오려면 그들이 저렇 흠을 가주어야 한다. 전체는 자유의 분위기속에서만 자유로이 호흡할 수 있다는고 밀은 말 한다. 전체는 인류를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자이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깊게 하며 혹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능케하는 방법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제의 훌륭무때는 자유로운 사회와 분위기만이다. 개성을 발전시키고 발휘할수 있는 곳에는 희망이있다. 자유가 있는곳에만 항상과 진보의 희망이 있다. 『전제주주의치하 (治下) 라 해도 거기에 개성이있는 한. 그 전제주의는 최악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 무엇이든 개성을 뭉개버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든간에 전제주의다』

그러므로 『개성을 곧 발전이라 바꾸자이 말할수 있고, 또 개성의 계발 (啓發) 만이 훌륭한 인간을 만들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개성을 발살하는 위축시키는 것은 그 사회나 국가를 결국에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빈약하게 만들 뿐이다. 그때서 「밀」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타른사람들을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은 모든 타른 사람의 자유와 발전에 어긋나는 일일뿐더러, 그 강한 사람 자신을 타락케하는 일이라』 라고 말한다. 강한 사람이 타른 사람들을 강요하여 자기가 원하는길로 가게 하면 세상이 잘 될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사회에 개성이 없고 자유가 없게 되면, 결국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불행하게 된다. 그 사회는 썩고 그 국가는 약하게 될 수 밖에없다.

개성, 그리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휘가 이렇게 중요하기때문에 「밀」은 사회 일방의 풍조나 관습에서벗나는 불일치 (不一致 nonconformity) 가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까지 본다. 사람들이 그저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사회에 그저 관습에 부응을 하지 않고 그 관습에 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사회에 대한 큰 봉사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같은 사람도 그시대의 관습과 정통적 사상을 일탈으로써 인류에 대하여 참으로 위대한 봉사를 하였다. 』

세상 일반의 여론이 괴벽한 행동을 비난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의 행동을 제드러기위하여 사람들이 좀 괴벽해져야 한다고 밀은 말한다. 요컨대, 사회가 발전하는 때는 괴짜가 있어야 한다. 괴짜가 많다는것은 그 사회에 개성의 힘이넘침을 웅변하며, 동시 「철저하게 인류 평등과 도덕적 용기」가 그만큼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괴짜, 혹은 세상의 풍조와는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장한 성격의 소유자가 속출하으면, 그때야말로 바로 그 사회의 위기라 할 수 있다고하는 것이 밀의 사상이다.

이런 까닭에 국가나 정부는 각방면에서 국민의 자유를 신장 (伸張) 시켜 국민 각자가자기의 개성을 훌륭히 키운고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 (配慮)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배려는 나라를 경말. 훌륭하게발전시키려는 국가나 정부의 중요한 의무다. 국민들이 자유로이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지못하게 되면 그 나라의 발전을 정지하게 된다. 『정신계 노예상태의 일반적 분위기 속에서도 개인으로서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분위기 속에서는 지력 (知的) 으로 활발한 국민이 연대까지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고, 또앞으로도 결대로 없을 것이다.

과거에 어떤 국민이 지력으로 활발한 국민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때에 이단적 (異端的)인 생각에 대한 무대을이 없었던 때문이다. 인류역사를 통하여 이단들은 가끔인간의 정신에 광명을 보여낳어주었다.

그러므로 국가가 국민의 사상을 그저 제약하기만 하는것이 능사 (能事) 가 아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해서 기대한 바와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인간을 정신을가진 동물이요, 인간의 정신은 불의를 부정하고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자유의 불평이구비될 때 억압하고 구속하고제약하면 사람들의 구심 (口實) 은 불거져 같이 사라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보이는 시점이 비친다.

사람마다 자기 개인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유로와야 하지만 타른 사람들을위해서 일할 때에는 그 일이자기자신의 일이라는 구실 아래 멋대로 할 자유가 있어서는안된다. 국가는 각개인의 개인적 문제에 관해서는 그 자유를존중해야 하지만, 사람마다 타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이것에 대하여 배우정계하면서 통제해야만 한다. 요컨대, 국가는 모든 국민이 고루 자유권도록배려하여야한다.

밀은 「논쟁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결론을 한목으로 기울게 하려는 국가의 모든 기도 (企圖) 는 악이다」 라고 말한다. 보통은 자유로이그리고 충분히 전개되어야한다. 이러한 토론에서 중지 (衆智) 가 모아져 국가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 정부는 개인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며 또개인들의 발전을 적극 도와주어야한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다.

국가가 개인들의 정신적 팍 팍하여 앞에서 오는 이익을위로 미루고 평정의 수탈을 좀 늘려보려 한다든지…설사 국민 민복을 위하는 목적에서라도 국민들을 위력시켜 그 손아귀속의 온순한 도구가 되게 하려 한다면, 곧은 사람들을 가지고는 위대한 일을 하나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경영, 위대한 국가는 자유를 누리는 국민들로부터 비롯 솟아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참다운 언론의 자유, 평복주구의 자유등 민주주의의 기본필 자유들이 충분히 부여되기를 바란다.

이런 자유가 사회에 넘치고 그러기에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위축되지않고 활기에 넘쳐 모든 국민이 기쁨 마음으로 자기의 일에 열중할수 있는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될때 우리의 소원임 뿐일도 다가올 가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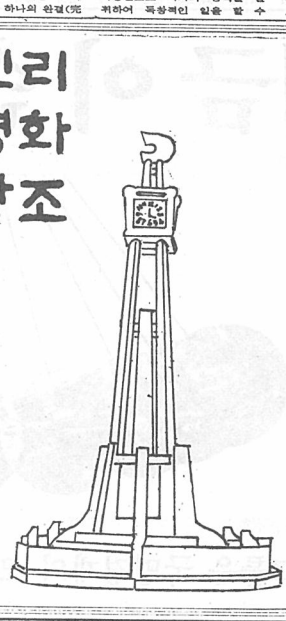
文學과思想新書 1
●문학의 금광맥 러시아의 寶庫는 무엇일까? 「원초연대기」, 도스또옙스끼, 솔제니친까지를 개관한…
러시아文學과思想
마르스 슬로님 外/金主鎭 옮김
신국판 306면/빈양장/값 3,000원
러시아문학은 우리에게 친밀했다. 그러나 그러한 문학이 배태될 수 있었던 문학사의 배경을 우리는 몰랐다. 문학과 혁명과의 관계, 국민사상, 역사적 배경, 수난의 이유 등을 냉철하게 분석·소개한 이 책은 러시아문학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줄 것입니다.
새 시대를 겨냥한 새로운 조명!
아인슈타인
바네슈 호프만지/崔赫洵 옮김
차례/1사랑팀과 어린 시절/2소년 시절과 청년시절/3서곡—특허청시대/4 새로운 태양이 비치다/5분자운동/6보다 나은 시절/7베른에서 베를린으로/8프린키피아에서 프린케페르/9프린케페에서 프리스턴으로/10전쟁과 원자탄/11무한한 공간/12사람은 죽는다/부록·아인슈타인 어록
신4×6/343면
화보12P/값2,800원
新現実社

寶石全書 보석전서
보석의 특성
시장및 영업
감별방법 등
尹相煥 공저
洪吉杓
보조품이 관치는 금은보석 시장에 과분을 일으켰던 알기쉬운 지침서!
금은보석의 올바른 판별서!
2판/서점발매중
값 3,500 원
新潮社刊
37-4235

검안사경을 따라시력
광신안경
▲백내장금지
▲고도근시
……광신교예
(중간)
(전)암과 1층·1별관
5553

스페인어
개강 5월 9일 금요일
명도 언어 연구원
MBC옆 프란치스코회 부설
☎776 2428
◎3등급에 따른 단계적 지도
◎Lab 시설 완비
◎서서 무료강좌

진리 평화 창조



祝 發展
紙齡 300號
母校의 무궁한
發展과 繁榮을
祈願 합니다
대표이사 유 회 수
주식회사 화인양행
화인화학주식회사
화인공업주식회사

# 노붐(Novum·새로운 존재)의

## 본보 지령(紙齡)300호 기념특집논문·90매 전재(全載)

## 영원한 현재는 비역사적 의식의 희망의 미래에서는 유물론적 구체적 현실과 메시아적 의식의 참된 현실이 수렴되어야

## 희망은 불가능을 위한 고뇌 생명의 본질적 성격은「새 것」추구

### 서언(序言)

희망(希望)은 다만 우리시대의 관심에 국한(局限)되지는 않는다. 희망은 인간의 역사와 거의 같은 깊이와 뿌리를 지닌채 면면히 이어오면서 한 시대를 현재와 미래가 맞닿는 지평선으로 솟게끔한다. 미래의 지평선으로 이동해간시대는 생명력을 얻어 즐기차게 존속을 해나가고 이와 대불어 역사는 지속(持續)되어 찾으며 희망은 끊임없이 역사를따라 흐름하는 동력기의 역할을 떠맡아 왔다.

희망이 철학의 관심이 되기시작한 것은 마르크스 이후라 할수 있다. 마르크스의 역사관은 한마디로말해 세속화된 종말론이었다.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도래하여 공산주의로 이행(移行)한다는 곡선흐름이고 결정론적 희망은 프롤레타리아에게 기울어졌다. 프롤레타리아는 새 것을 기대하며 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회주의 희망이 진정한 현실화 미래에 실현시킨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수를 얻어내는 유물론적인 미래는 프롤레타리아의 미래의식을 마음 전진시켰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연히 그들의 행위와 이념에있어서 혁명을 띠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한편「불가능한것을 위한 고뇌」가 희망이라는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희망하는 바가 역시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면 희망이 가능을 위한 고뇌가 필수는 없다. 희망은 모순의정 (矛盾)에 면져져 있는 우리 인간이 고뇌를 하는 가운데 역명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출현한다. 현 시기에 있어서 실현시키기 불가능한 진정한 현실은 유물론적 생취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희망은 내적 현실이되며 인내와 의지로 응결(凝結)이 되어 메시아의 희망으로 결실을 맺어버리는 희망이라할 수 있다.

위 두가지 양립된 사실에비추어 보아 희망은 모순된 상황에서 싹 피오른다는 공통적인 사실을 알수 있다. 즉 존재가 자유로이 활동해야할 현실이 해곡(歪曲)됨으로써 실재에 대한 일체이 깊어가고막아서 희망은 서서히 그의 고개를 쳐들게 된다. 위기가 있는 곳에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자라나고 한편 희망이 있는곳에 위험 역시 자라나는 것이다. 또한 희망이 있는 곳에서는 종교가 자라난다. 종교를통해 얻어진 희망이 기반(羈絆)이 될 수있다. 그 까닭은 희망의 본질 가운데 기반성이 있다손치더라도 희망은 가능성다운 가능성을 발휘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성마저없는 미래에다가 현실의 고뇌를 해소시키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희망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기본테인 바탕조차도 갖추지못한 현실의 기반이며 뿐만 아니라 그때로의 기반이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의 근거가 단순히 현재의 미혹(迷惑)을 위한 미래의 기반에있지 아니함을 밝힐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유물론적 가시적 구체적 현실이 이루어지는데에만 집착하여 이것이 바로 희망의 핵심이되었을 때 희망은 단순한 계획에 불과해지며 이러한 희망에 있어서 사건의식은 영원한 현재 (nunc aeternus)에 불과하다. 미래는 현재의 시간에서 추방당하고 지평선은 과거와 미래합속으로부터 현재를 향하여 곡소당하면서 정지하는 시간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었던 고뇌피합인에게는 관도라의 상자(箱子)에 남아있던 희망마저도 불행을 의미하였다.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새로운 현실을 위해 고뇌하고 투쟁한다는 사실은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졌으며 현재가 영원히 존속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리하여 영속혁인것, 시간혁인것, 무시간혁인 것이 언제나 영원한 현재에 머무름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편 플질의 신관대사를 전혀 없두에 두지 않고 우리의 의식을 미래로 해소시키려는 형이상학적 메시아의 희망에 주목을 해야겠다. 이러한 희망에서는 미래가 가능하다 혹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현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오인된다. 따라서 희망피어진 미래에서는 유물론적 구체적 현실과 메시아적의식의 참된 현실을 동시에 증수시킬수 있어야 한다. 즉 구체적 현실과 메시아적 현실은 서로 격리되어 있어서는 아니되며 한 지점에서 수렴할 수 있어야한다. 그때서 우리가 이단의의 바른 의미에서 진정한 현실이라 함은 바로 유물론적이고 메시아적으로 참된 현재가 실현됨을 의미하게 된다.

차 례

서 언(序言)
1. 희망에 있어서 NOVUM의 실재
2. 미완성 의식으로서의 NOVUM
3. 철학적 두근거
1. 유물론적 근거
2. 메시아적 근거
4. 지평선을 넘나드는 NOVUM
5. 참고문헌 (Bibliography)

본고(本稿)의 목적은 novum「새로운 존재」혹은「새것」의 메시아적 근거와 유물 적근거의 실(實)과 허(虛)를 밝혀봄으로써 앞자의 한계와 상호보완성을 규명하고 새로운 의미의 novum의 구성을 모색하려 한다.

### 1. 희망에있어서 novum의 실재

이미 상술(詳述)한 바대로 희망은 미래의 지평선을 향해전진해가고 있다. 이 전진은 멈출수 없는 진행과정이다. 한편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미지(未知)의 것이라고 말할수 밖에 없다. 이것은 과거에경험한 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과거의 것은 희상 속에남아 역사의 잔흔이 되어버리나 미지의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 하나로 존재에게는 두려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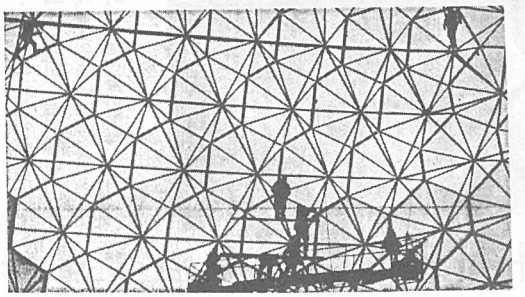
미래에 나타날 대상이 무엇이냐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는 것 즉 지평선상에 놓여있다는는 사실로만도 두려움이 된다. 이 두려움은 과거에 있었던 악몽의 다른 양상일 수는 없다. 구체적인 대상이라기 보다는 막연한 대상이기 때문 우리는 두려움(Angst)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은 다름아닌「새로운 존재(novum)」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novum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체험하지 못한 다른 것이다. 따라서 novum은만복성을 띨 수가 없다. 반복성과 파격성을 띠고 있는 novum은 novum이라 부를수조차 없다. 따라서 미래에 해해 우리가 갖게 되는 바람의 대상은 novum이 됨은 당연하다. 이미 과거의 이루어진것을 바라는 희망은 희망의 본질에서 거리를 두게 된다. 생명은 새것을 추구한다(Incipit vita nova) 함은 생명의 본질적 성격이 되며 생명이 된다.

그런데 novum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겨질려온 오류가 운데 하나는 새것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이비적 novum마저 유효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novum은 역사 속에서 살아옴직이며 미래로 향해 전진해야하는데 경제된 의식속에서 존미한 상태로 경험되어버린 역사 속에서 novum을 응결시켜버린 사태를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특히 베르그송(Bergson)의 생철학을 들 수 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우리들 자신 가운데에는 순수지속이 있다. 이 지속은 자연과 학적 시간과는 전혀 다르다. 유일 불가분한 행동이 피어 비약이며 생명이다. 이 생명은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이 발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생은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때때로 깊을 일기도 하며 박다른 곡목에 부딪힘때도 있다. 그러나 생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존속한다. 「생의 약동(élan vital)」은 스스로를 전개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방향으로 분할된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요약해본 베르그송의 순수지속에 대한 견해에서 우리는 다음과같은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즉 순수지속에 의해 연장되는 생의 진행과정은 단순히 미래속으로 밀물되었는가와 생의 가능성이 도덕해 존재한는가하는 문제이다. 사실 순수지속이라는 개념에서는 처음과 끝이라는 개념이 불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생이 출발하여 어느방향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가도 묻지 않는다. 생이 끊임없이 진보해 나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생은 진행과정이 종결한다는 것이다. 순수지속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이동한 한다는 말이기는 하나 물리학적시간은 아니다.

직관을 통해 우리가 연속되어가고 있다는 것만을 느끼게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갑작되어 나타나는 것은 현재 뿐이다. 따라서 미래와 과거가 현재의 영향력 가운데 합일되어 자취를 감추고 만다. 현재가 순수히 지속되는 시간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개념의 의미는 자리를 잃고 말게 된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갔다고 직관요로 파악하더도 이 의식은 현재에 관한 의식에 불과하다.

베르그송의 순수지속에 의한「생의 약동」이 기계론적 사유와 목적론적 사유에 대한 반발이 강하게 작용됨에서 연유했다는 점을 강안하더라도 베르그송에게 있어서는 생의 가능성을찾아볼수가 없다. 미래도 현재를 위한 주상적 개념으로 전락(轉落)해 버리고 지속을 설명하기위한 대개념(Gegenbegriff)에 불과하게 된다. 미 구체적으로 말해 베르그송은 novum이 전혀 존재할 틈이없는 생의 영역을 구축했다. 더 나아가「생의 약동」이나 미래상등



제에 대한 비호(庇護)의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복적 결서를 유지하기수단에 불과하였으며 혹「생의약동」이라는 개념이 durée의 쉬약임을 보완해 준다 하더라도 생의 전체적인 면에서「생의약동」은 불가능하며 다단 지엽적인 면에만 치우침으로써 영원한 현재 (nunc aeternus)를 합리화 시키려는 근거가 박약한 비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novum이 동일반복적일 수 없으며 피행적이거나 현재에 고착해서는 novum의 의미가 상실하게 됨을 깨달았다. novum이 현재와 일착하여 ultimum화 novum이 되어 버리고 생의 가능성을 상실한 이후에 우리는 희망이 novum화의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하는 의문은 전혀 가질 수 없게 된다. 사실, 베르그송에게 있어서는 novum이 없었기 때문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다. elan vital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하고 일어난다는 확신, 혹은 신념조차도 가질 수 없을 만큼 durée의 공기는 우리를 질식시켰다. 베르그송의 novum은 다만 생의 약동이「일어났으면···」하는 그의 신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베이지 이런 성격을 전혀 띠고 있지 아니한한 novum이 희망에 대해 갖을 수 있는 관계는 공감한에 불과하다. 희망은 존재에 대한 희망이다. 사회에 대한, 집단에 대한 희망이다. novum역시 존재, 사회, 집단에 대한 novum이어야 한다. 따라서 elan vital과 같은 불투명한 개념에 의해 전개되는 미래는 novum의 정수(精髓)를 해곡하는 사회와 집단에 대한 부기력한 변호일 뿐이다.

### 2. 미완성의식으로서의 novum

의식활동을 하는 존재로서의 우리가 왜 희망을 갖게되고 novum에 대한 강한 집착감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들기 이전에 분명히는 우리가 왜 희망을 존재 가질 수 없게 된다. 사실, 베르그송에게 있어서는 novum이 없었기 때문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다. elan vital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하고 일어나다는 확신, 혹은 신념조차도 가질 수 없을 만큼 durée의 공기는 우리를 질식시켰다. 베르그송의 novum은 다만 생의 약동이「일어났으면···」하는 그의 신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베르그송은 피행적 (進行的) 철학의 본보기다.

희망은 novum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이 아닌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실현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novum이라야 한다. 피행적이 아닌 진행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novum은 역사적 존재를 뛰 새겨넣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희망된 미래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전진하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novum이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한에서만 희망의 부분집합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희망에서는 미래가 가능하다 혹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성격은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이 발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생은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때때로 깊을 일기도 하며 박다른 곡목에 부딪힘때도 있다. 그러나 생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존속한다. 「생의 약동(élan vital)」은 스스로를 전개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방향으로 분할된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요약해본 베르그송의 순수지속에 대한 견해에서 우리는 다음과같은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즉 순수지속에 의해 연장되는 생의 진행과정은 단순히 미래속으로 밀물되었는가와 생의 가능성이 도덕해 존재한는가하는 문제이다. 사실 순수지속이라는 개념에서는 처음과 끝이라는 개념이 불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생이 출발하여 어느방향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가도 묻지 않는다. 생이 끊임없이 진보해 나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생은 진행과정이 종결한다는 것이다. 순수지속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이동한 한다는 말이기는 하나 물리학적시간은 아니다.

직관을 통해 우리가 연속되어가고 있다는 것만을 느끼게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갑작되어 나타나는 것은 현재 뿐이다. 따라서 미래와 과거가 현재의 영향력 가운데 합일되어 자취를 감추고 만다. 현재가 순수히 지속되는 시간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개념의 의미는 자리를 잃고 말게 된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갔다고 직관요로 파악하더도 이 의식은 현재에 관한 의식에 불과하다.

베르그송의 순수지속에 의한「생의 약동」이 기계론적 사유와 목적론적 사유에 대한 반발이 강하게 작용됨에서 연유했다는 점을 강안하더라도 베르그송에게 있어서는 생의 가능성을찾아볼수가 없다. 미래도 현재를 위한 주상적 개념으로 전락(轉落)해 버리고 지속을 설명하기위한 대개념(Gegenbegriff)에 불과하게 된다. 미 구체적으로 말해 베르그송은 novum이 전혀 존재할 틈이없는 생의 영역을 구축했다. 더 나아가「생의 약동」이나 미래상등



제에 대한 비호(庇護)의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복적 결서를 유지하기수단에 불과하였으며 혹「생의약동」이라는 개념이 durée의 쉬약임을 보완해 준다 하더라도 생의 전체적인 면에서「생의약동」은 불가능하며 다단 지엽적인 면에만 치우침으로써 영원한 현재 (nunc aeternus)를 합리화 시키려는 근거가 박약한 비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novum이 동일반복적일 수 없으며 피행적이거나 현재에 고착해서는 novum의 의미가 상실하게 됨을 깨달았다. novum이 현재와 일착하여 ultimum화 novum이 되어 버리고 생의 가능성을 상실한 이후에 우리는 희망이 novum화의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하는 의문은 전혀 가질 수 없게 된다. 사실, 베르그송에게 있어서는 novum이 없었기 때문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다. elan vital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하고 일어나다는 확신, 혹은 신념조차도 가질 수 없을 만큼 durée의 공기는 우리를 질식시켰다. 베르그송의 novum은 다만 생의 약동이「일어났으면···」하는 그의 신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베이지 이런 성격을 전혀 띠고 있지 아니한한 novum이 희망에 대해 갖을 수 있는 관계는 공감한에 불과하다. 희망은 존재에 대한 희망이다. 사회에 대한, 집단에 대한 희망이다. novum역시 존재, 사회, 집단에 대한 novum이어야 한다. 따라서 elan vital과 같은 불투명한 개념에 의해 전개되는 미래는 novum의 정수(精髓)를 해곡하는 사회와 집단에 대한 부기력한 변호일 뿐이다.

### 3. 철학적 두근거

#### 1. 유물론적 근거

이상 살펴본 바대로 희망은 미래의 지평선을 향해전진해가고 있다. 이 전진은 멈출수 없는 진행과정이다. 한편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미지(未知)의 것이라고 말할수 밖에 없다. 이것은 과거에경험한 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과거의 것은 희상 속에남아 역사의 잔흔이 되어버리나 미지의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 하나로 존재에게는 두려움이 된다.

미래에 나타날 대상이 무엇이냐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는 것 즉 지평선상에 놓여있다는는 사실로만도 두려움이 된다. 이 두려움은 과거에 있었던 악몽의 다른 양상일 수는 없다. 구체적인 대상이라기 보다는 막연한 대상이기 때문 우리는 두려움(Angst)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은 다름아닌「새로운 존재(novum)」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novum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체험하지 못한 다른 것이다. 따라서 novum은만복성을 띨 수가 없다. 반복성과 파격성을 띠고 있는 novum은 novum이라 부를수조차 없다. 따라서 미래에 해해 우리가 갖게 되는 바람의 대상은 novum이 됨은 당연하다. 이미 과거의 이루어진것을 바라는 희망은 희망의 본질에서 거리를 두게 된다. 생명은 새것을 추구한다(Incipit vita nova) 함은 생명의 본질적 성격이 되며 생명이 된다.

그런데 novum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겨질려온 오류가 운데 하나는 새것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이비적 novum마저 유효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novum은 역사 속에서 살아옴직이며 미래로 향해 전진해야하는데 경제된 의식속에서 존미한 상태로 경험되어버린 역사 속에서 novum을 응결시켜버린 사태를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특히 베르그송(Bergson)의 생철학을 들 수 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우리들 자신 가운데에는 순수지속이 있다. 이 지속은 자연과 학적 시간과는 전혀 다르다. 유일 불가분한 행동이 피어 비약이며 생명이다. 이 생명은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이 발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생은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때때로 깊을 일기도 하며 박다른 곡목에 부딪힘때도 있다. 그러나 생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존속한다. 「생의 약동(élan vital)」은 스스로를 전개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방향으로 분할된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요약해본 베르그송의 순수지속에 대한 견해에서 우리는 다음과같은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즉 순수지속에 의해 연장되는 생의 진행과정은 단순히 미래속으로 밀물되었는가와 생의 가능성이 도덕해 존재한는가하는 문제이다. 사실 순수지속이라는 개념에서는 처음과 끝이라는 개념이 불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생이 출발하여 어느방향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가도 묻지 않는다. 생이 끊임없이 진보해 나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생은 진행과정이 종결한다는 것이다. 순수지속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이동한 한다는 말이기는 하나 물리학적시간은 아니다.

직관을 통해 우리가 연속되어가고 있다는 것만을 느끼게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갑작되어 나타나는 것은 현재 뿐이다. 따라서 미래와 과거가 현재의 영향력 가운데 합일되어 자취를 감추고 만다. 현재가 순수히 지속되는 시간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개념의 의미는 자리를 잃고 말게 된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갔다고 직관요로 파악하더도 이 의식은 현재에 관한 의식에 불과하다.

베르그송의 순수지속에 의한「생의 약동」이 기계론적 사유와 목적론적 사유에 대한 반발이 강하게 작용됨에서 연유했다는 점을 강안하더라도 베르그송에게 있어서는 생의 가능성을찾아볼수가 없다. 미래도 현재를 위한 주상적 개념으로 전락(轉落)해 버리고 지속을 설명하기위한 대개념(Gegenbegriff)에 불과하게 된다. 미 구체적으로 말해 베르그송은 novum이 전혀 존재할 틈이없는 생의 영역을 구축했다. 더 나아가「생의 약동」이나 미래상등



제에 대한 비호(庇護)의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복적 결서를 유지하기수단에 불과하였으며 혹「생의약동」이라는 개념이 durée의 쉬약임을 보완해 준다 하더라도 생의 전체적인 면에서「생의약동」은 불가능하며 다단 지엽적인 면에만 치우침으로써 영원한 현재 (nunc aeternus)를 합리화 시키려는 근거가 박약한 비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novum이 동일반복적일 수 없으며 피행적이거나 현재에 고착해서는 novum의 의미가 상실하게 됨을 깨달았다. novum이 현재와 일착하여 ultimum화 novum이 되어 버리고 생의 가능성을 상실한 이후에 우리는 희망이 novum화의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하는 의문은 전혀 가질 수 없게 된다. 사실, 베르그송에게 있어서는 novum이 없었기 때문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다. elan vital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하고 일어나다는 확신, 혹은 신념조차도 가질 수 없을 만큼 durée의 공기는 우리를 질식시켰다. 베르그송의 novum은 다만 생의 약동이「일어났으면···」하는 그의 신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베이지 이런 성격을 전혀 띠고 있지 아니한한 novum이 희망에 대해 갖을 수 있는 관계는 공감한에 불과하다. 희망은 존재에 대한 희망이다. 사회에 대한, 집단에 대한 희망이다. novum역시 존재, 사회, 집단에 대한 novum이어야 한다. 따라서 elan vital과 같은 불투명한 개념에 의해 전개되는 미래는 novum의 정수(精髓)를 해곡하는 사회와 집단에 대한 부기력한 변호일 뿐이다.

#### 2. 메시아적 근거

희망은 불가능을 위한 고뇌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바라게 되고 여기에 몸신을 다하게 된다. 그는 세워지지 않은 그의 상태에 대해 절망을 느낌은 물론이려니와 이런 이유로 인해 그는 갖은 방법을 다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길다는 욕망을 지닌으로써 어기에서 좋동심이 발생하여 더불어 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불르크는 인간존재의 충동적 성향을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해가고 있다. 첫째는 충족가능욕망(Gefüllte Affekte)이며 둘째는 기대욕망(Erwartungsaffekte)이다. 충족가능욕망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시기, 질투, 명예와 같은 것이 있으며 기대욕망으로서는 두려움, 공포, 희망, 그리고 신앙과 같은 것이있다. 그런데 시기나 질투가 같은 충족가능한 욕망은 그 발생이 미세한 인간관계에서 연유하기 때문 개인의 갖정 가운데 아직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때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이 지신이 지남에따라 확실히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기대욕망이 아직 세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에게는 이미 성취되어 있는 상태가 됨다. 기대욕망은 충족가능욕망과는 달리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해 자유로이 예측활동을 할수 있게 됨다. 따라서 기대욕망에 의해 우리는 미래에대해 충동을 갖게 됨는것이다.

미래에 대해 예측을 자유로이 상상활동을 하는 행위를 백일몽(Tagtraum)이라 말할 수 있다. 아직 충족되지 아니한 진정한 현실에 대한 기대욕망은 자유자재로 미래에 대한 환상을 그려가게 됨다. 진정한 현재가 아직 드러나 있지 않고 또한 언젠가는 진정한 현재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강한 신념에 의해 성취되지 아니한 현실가운데 가능성에 대한 잠재성(Latenz)과 경향성(Tendenz) 이 존재하게 됨은 자명(自明)하다. 잠재성과 경향성은 진정한 현실에 대한 존재론적 투측연이 됨다. 잠재성과 경향성에 의해 모든 존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를 거쳐 유지하고 있게 됨다.

그리하여 불르크는 이러한 아직 아니이루어진 상태(das Noch-Nicht-Gewordene)에 대한 의식을 미완성의식(das Noch-Nic-ht-Bewusstsein)의라 규정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완성의식은 다른 모든 의식을 포괄하는 의식이다. 진의식(Vor-bewusstsein)이나 무의식(Un-Bewusstsein) 그리고 잠재의식(Unter-Bewusstsein)은 모두 미완성의식에 속하게됨다. 자연, 미완성의식은 현금에 도래하지 아니한 novum에 대해 강한 충동을 갖게 됨다. 이미 성취된 것이 Noch-Nicht (미완성)이 아니됨은 자명하다. 따라서 novum은 이미 성취되어 사라져 버림 Nicht-Mehr (과거) 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됨다. novum은 과거 이미 존재하였던 것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고 (das Noch-Nicht-Sein) 성취되지 아니한 세계(die Noch-Nicht-Gewordene Welt)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됨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위 견해와의 색다른 충동들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충동의식의 정수를 가림 필요가 있다. Bloch의 말대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 충동을 받게 됨으로 우리는 기대욕망에 사로잡히고 있다. 기대욕망은 그의 구체적 형위로써 미래에 대해 기대의도를 갖게 하며 또한 백일몽(Tagtraum)을 표상함으로써 미래에의 설계를 강방하고 novum에 대한 강한 집착감을 갖게됨다고 하였다. 불르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갔으로써 Tagtraum과 Nachtraum (꿈)을 구별하고 있으며 프로이트(Freud, Sigmund)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퇴행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내리고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거리낌없이 가장 경박한 모습을 하나로 합치고 불가능을 허용하고 낮에 온 영향력을 가진 지식을 소홀히 하고 우리들을 은리려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장하게 만든다고 했다. 꿈은 무질서가 넘쳐져 있는 것을 암록한 정신병리상태이며 역행이 바로 신경쇠 증세를 명정하면서 꿈의 해석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사람은 본질상 리비도에 의해 충동을 받아 역행을 하려 하며 꿈은 다름 아닌 역행작용으로서 소망충족이 됨다는 사실이다. 즉 인간은 유아(幼兒)의 본능으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충동과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불르크는 프로이트의 퇴행적 욕망에 대해 전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르크에 따르면 미래의 욕망은 자유자재로 미래에 대한 환상을 그려가게 됨다. 진정한 현재가 아직 드러나 있지 않고 또한 언젠가는 진정한 현재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강한 신념에 의해 성취되지 아니한 현실가운데 가능성에 대한 잠재성 (Latenz) 과 경향성 (Tendenz) 이 존재하게 됨은 자명(自明) 

# 철학적 두근거

파스칼은 말한다. 『현재는 결코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과거와 현재는 우리의 수단인 것뿐이고 미래만이 우리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것을 희망한다. 』고. 과연 그러가. 쫓의 소재는과거에 있고 그 목적은 미래에 있다는 한 경구 (警句)에서 보듯 판도라의 안용 (容貌) 이후 인간은 무수히 희망의 손짓에 농락당해 왔는지도 모른다. 가열한 현실에서의 삶의 좌절 (挫折) 또는 희망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미 지난해 논문 「이데올로기는 그 허위성이 전부인가」로 우리에게 낯이 익은 젊은이 서프콘것 (novum) 을 추구하는 인간정신에 생명의 본질적 성격이 있음을주장하고, 희망이 있는곳에 위기가 자라나며 위기가 있는곳에 희망이 자라난다는 그의 논지를 개진 (開陳) 하고 있다.

본보 지령 (紙齡) 300호 기념으로 대학신문 사상처음의 매 전재 (全載) 되는 이 특집논단에 독자의일독 (一讀) 있기를 기대한다. (지면상 필자주 (註) 는 생략함) <편집자주>

## 3. 철학적두근거

### 1. 유물론적 근거

「인간한정의 제1보는 노동이다」라는 인장에서 미래를 조명하는 자에게 물질의 실현없이 현재를 미래로 현장시켜놓는 일은 순수기만 (欺瞞) 이라고 여겨질수 밖에 없다. 그에게 있어서 노동은 예배와 다름없는 거룩한 의식인것이다. 노동으로 인해 그의 모든 존재에 관한 인식이 가능해지며 존재에 대한 희미를 찾게된다. 인식이 노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인식을 규정하게되며 그가 노동을 보편이라 장조함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더나아가서 노동은 그의 신앞인 것이다.

노동은 그의 존재와 인식을 모두 규정함으로서 노동력에 의해 그의 인간상을 평가 받게 한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은 다른 모든 것에 비해 우위 (優位) 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집단 혹은 개인에게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어서 이들이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면 노동에 의해 성취하지 못한 업적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노동을 통해 불합리스런은 현실을 미래에는 만족스럽은 구체적 현실로 변형시키는 것이 이들의 희망이 되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집단 혹은 개인의 novum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 역시 자기 자신의 주위에 구체적으로 현실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들의 진정한 현실 역시 아직도 도래 하지 않은 (das Noch-Nicht-Geworene) 상태에 있다. 진정한 현이 아직 아니 실현된 현실이므로 인식과 존재의 근본적 질문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세계를 파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현 세계는 늘 시작이며 근원 (根源) 이 된다. 이러한 세계의 근본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 진정한 현실은 그들이 피지배계급을 보다 완전하고 철저히 착취할수 있는 시기를 맞았지도 모른다. 배부른자도 일마두 곧 배고픔을 느끼며 공복감 (空腹感) 에서 헤어나올수 없으므로 부(富)에 의해 유발되는 기대의도및 기대욕망은 자연히 실 등이 없게된다.

위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본질한 사실이 있다면 앞게급이 모두 공복감 (Hunger) 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미란 성의식을 어느 특정계급의 이익을독기가 필수 없고 오히려보편적 의식이라는 사실이다. 계급에 따라 진정하고 구체적 현실이 도래 (到來) 할 미래에 대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유물론적 근거와 메시아적 근거로 구분하여 그 철학적의미를 해명해 보기로 한다.

### 3. 철학적두근거

### 1. 유물론적 근거

「인간한정의 제1보는 노동이다」라는 인장에서 미래를 조명하는 자에게 물질의 실현없이 현재를 미래로 현장시켜놓는 일은 순수기만 (欺瞞) 이라고 여겨질수 밖에 없다. 그에게 있어서 노동은 예배와 다름없는 거룩한 의식인것이다. 노동으로 인해 그의 모든 존재에 관한 인식이 가능해지며 존재에 대한 희미를 찾게된다. 인식이 노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인식을 규정하게되며 그가 노동을 보편이라 장조함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더나아가서 노동은 그의 신앞인 것이다.

노동은 그의 존재와 인식을 모두 규정함으로서 노동력에 의해 그의 인간상을 평가 받게 한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은 다른 모든 것에 비해 우위 (優位) 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집단 혹은 개인에게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어서 이들이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면 노동에 의해 성취하지 못한 업적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노동을 통해 불합리스런은 현실을 미래에는 만족스럽은 구체적 현실로 변형시키는 것이 이들의 희망이 되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집단 혹은 개인의 novum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 역시 자기 자신의 주위에 구체적으로 현실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들의 진정한 현실 역시 아직도 도래 하지 않은 (das Noch-Nicht-Geworene) 상태에 있다. 진정한 현이 아직 아니 실현된 현실이므로 인식과 존재의 근본적 질문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세계를 파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현 세계는 늘 시작이며 근원 (根源) 이 된다. 이러한 세계의 근본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 진정한 현실은 그들이 피지배계급을 보다 완전하고 철저히 착취할수 있는 시기를 맞았지도 모른다. 배부른자도 일마두 곧 배고픔을 느끼며 공복감 (空腹感) 에서 헤어나올수 없으므로 부(富)에 의해 유발되는 기대의도및 기대욕망은 자연히 실 등이 없게된다.

위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본질한 사실이 있다면 앞게급이 모두 공복감 (Hunger) 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미란 성의식은 어느 특정계급의 이익을독기가 필수 없고 오히려보편적 의식이라는 사실이다. 계급에 따라 진정하고 구체적 현실이 도래 (到來) 할 미래에 대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유물론적 근거와 메시아적 근거로 구분하여 그 철학적의미를 해명해 보기로 한다.

### 3. 철학적두근거

### 1. 유물론적 근거

「인간한정의 제1보는 노동이다」라는 인장에서 미래를 조명하는 자에게 물질의 실현없이 현재를 미래로 현장시켜놓는 일은 순수기만 (欺瞞) 이라고 여겨질수 밖에 없다. 그에게 있어서 노동은 예배와 다름없는 거룩한 의식인것이다. 노동으로 인해 그의 모든 존재에 관한 인식이 가능해지며 존재에 대한 희미를 찾게된다. 인식이 노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인식을 규정하게되며 그가 노동을 보편이라 장조함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더나아가서 노동은 그의 신앞인 것이다.

노동은 그의 존재와 인식을 모두 규정함으로서 노동력에 의해 그의 인간상을 평가 받게 한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은 다른 모든 것에 비해 우위 (優位) 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집단 혹은 개인에게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어서 이들이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면 노동에 의해 성취하지 못한 업적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노동을 통해 불합리스런은 현실을 미래에는 만족스럽은 구체적 현실로 변형시키는 것이 이들의 희망이 되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집단 혹은 개인의 novum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 역시 자기 자신의 주위에 구체적으로 현실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들의 진정한 현실 역시 아직도 도래 하지 않은 (das Noch-Nicht-Geworene) 상태에 있다. 진정한 현이 아직 아니 실현된 현실이므로 인식과 존재의 근본적 질문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세계를 파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현 세계는 늘 시작이며 근원 (根源) 이 된다. 이러한 세계의 근본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 진정한 현실은 그들이 피지배계급을 보다 완전하고 철저히 착취할수 있는 시기를 맞았지도 모른다. 배부른자도 일마두 곧 배고픔을 느끼며 공복감 (空腹感) 에서 헤어나올수 없으므로 부(富)에 의해 유발되는 기대의도및 기대욕망은 자연히 실 등이 없게된다.

위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본질한 사실이 있다면 앞게급이 모두 공복감 (Hunger) 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미란 성의식은 어느 특정계급의 이익을독기가 필수 없고 오히려보편적 의식이라는 사실이다. 계급에 따라 진정하고 구체적 현실이 도래 (到來) 할 미래에 대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유물론적 근거와 메시아적 근거로 구분하여 그 철학적의미를 해명해 보기로 한다.

### 3. 철학적두근거

### 1. 유물론적 근거

「인간한정의 제1보는 노동이다」라는 인장에서 미래를 조명하는 자에게 물질의 실현없이 현재를 미래로 현장시켜놓는 일은 순수기만 (欺瞞) 이라고 여겨질수 밖에 없다. 그에게 있어서 노동은 예배와 다름없는 거룩한 의식인것이다. 노동으로 인해 그의 모든 존재에 관한 인식이 가능해지며 존재에 대한 희미를 찾게된다. 인식이 노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인식을 규정하게되며 그가 노동을 보편이라 장조함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더나아가서 노동은 그의 신앞인 것이다.

노동은 그의 존재와 인식을 모두 규정함으로서 노동력에 의해 그의 인간상을 평가 받게 한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은 다른 모든 것에 비해 우위 (優位) 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집단 혹은 개인에게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어서 이들이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면 노동에 의해 성취하지 못한 업적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노동을 통해 불합리스런은 현실을 미래에는 만족스럽은 구체적 현실로 변형시키는 것이 이들의 희망이 되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집단 혹은 개인의 novum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 역시 자기 자신의 주위에 구체적으로 현실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들의 진정한 현실 역시 아직도 도래 하지 않은 (das Noch-Nicht-Geworene) 상태에 있다. 진정한 현이 아직 아니 실현된 현실이므로 인식과 존재의 근본적 질문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세계를 파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현 세계는 늘 시작이며 근원 (根源) 이 된다. 이러한 세계의 근본은 지금 여기에 있

Zadkine작 「삶」 <부분>

희망은 다만 우리 시대의 관심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희망은 인간의 역사와 거의 같은 뿌리를 지닌채 이어 오면서 한 시대를 현재와 미래가 맞닿는 지평선으로 옮겨 놓았다. 희망은 역사를 미래로 충동하는 동력기의 역할을 떠맡아 왔다.

베르그송 순수지속은 유일한 행동이며 생명

미완성의식은 생(生)의 근본적의식 블로크

프로이트 꿈은 무질서를 압축한 정신병리상태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

福祉社会—우리 모두의 所望입니다

重工業 발전으로
福祉社会 건설,
그것은 우리의 信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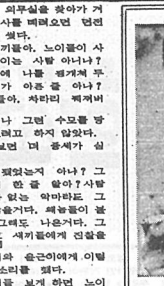
現代는 国内外에서
誠実하게 땀흘리며
우리 모두의 所望을
하나씩 実現해 나가고 있읍니다.

現代가 施工中인 原子力발전소 3号機 - 発電容量 68만KW의 국내최초 加圧重水炉型 原子力발전소로 84년 완공된다. 現代는 78년 7월 국내최초의 原子力발전소인 시설용량 60만KW의 古里 1号機를 완공한 이후 韓国唯一의 原子力발전소 건설전문 업체로서 지위를 굳히고 있다.

現代

# 창간 25주년 기념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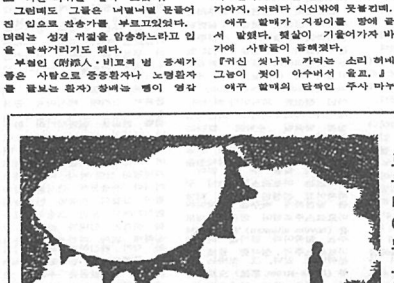
# 음지(陰地)



김 홍 신

1947년 충남 공주 출생. 건국대학교 국문과 졸업. 현대문학에 천료되어 데뷰.
작품:사설세무서, 대역인간, 인술견학, 무죄증명, 역죄등

조선 청년은 나환자로 등록되어 소록도로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소록도에 들어온지 일년도 채 못돼서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 멀쩡한 사람을 나환자로 단정해버렸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저 혼자 몸부림을 치다가 그 끝이 되었다.



이 한다
않은 꼬리 등거리
선고리 문고리
쩌는 꼬리는 게고리
나는 꼬리는 제고리
입는 꼬리는 저고리
……

가라앉는 목청이 예사 솜씨가 아니었다. 구성진 가락마다 손발짓을 하면서 능청을 떨었다. 그의 눈동자가 붙어 오르기 시작했다.

『아들 녀석이 찾아올카요?』

창배와 장기를 두고 있던 만덕이가 넌즈시 뱅이 영감에게 물었다.

『왜 안와 이놈아』

뱅이 영감은 상대걸을 해가며 대답했다. 그날 때 보면 쥐가 어들다는 것도 거짓말인것만 같았다.

『언제 온데요?』

흡수에 열을 올린데 윤근이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뱅이 영감은 눈동자를 쥐었튀어 여기저기를 훑어보다 한곳에 멈추었다. 그의 시선은 그 방구석 한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뱅이(병이)가 된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뱅이 영감은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었다. 정확히 말한다면 희망을 만들어 갔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뱅이 영감의 자식이 있다는 걸 믿었다. 그 아들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사항도 가지게 되었을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모기떼들이 극성스럽던 어느 여름 밤에, 희망을 만들어 갔는 법을 가르쳐 준 뱅이 영감이 힘없이 죽어 버렸다.

그렇게 확실히 살아 있어야할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있던 늙은이, 아들이 찾아 올때까지는 죽지 않을거라고 철저히 믿던 뱅이영감이 밤새 싱겁게 숨을 거두었다.

뱅이 영감의 시신 곁에는 윤근이와 만덕이가 철푸더기 주저 앉아서 소주를 억수로 마시고 있었다.

그때서 그는 번번이 일어났았다고도 했다. 그때서 그의 병병이 일어났아아 몰라가는 뱅이(병이)가 된 것이라고 했다.

뱅이 영감의 말이 사실이라면 뱅이 영감의 아들 나이는 마흔도 더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장난감을 어디에 쓰려고 모아두었는지 알수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뱅이 영감은 그 아들이 어린히 어린애 일것이고 자신의 나이가 어리히 젊었을 거라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이튿날 아침에 남끝방의 아가리가 큰 화구 속으로 뱅이 영감은 들어갔다. 조개탄의 파란 불꽃 속에 영감의 시체는 던져졌다.

그것으로 그는 끝이었다. 거우 한주먹밖에 안되는 재가 되어버렸다.

창배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주석날 이었다. 병동과 부원사, 특신사의 환자들이 만덕이와 윤근이가받든 만원서에 손도장을 찍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이거 체덕고 기음을 내 이 새겨 아.』

윤근이가 두부 한모를 창배의 벅밑에 디밀었다. 창배는 힘없이 웃고는 두부를 우물우물 씹었다. 씹기힘는 창배만 얼굴이 씰룩거렸다.

『정 떨어져 씨겨야, 을지랑고 그것부터 처먹어.』

『고만다. 노이를 이넌을 나도 시계가 꼐서 나왔을텐데.』

『씨팔 자식…그 새끼를 건들었을텐시제일 거 각오한 거 아녔어? 씨끌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 새끼야.』

윤근이와 만덕이는 밥 눈도록 창배를 뜻살게 굴었다. 창배는 밥없이 공놔을 듣기만 했다.

『네가 미쳤었나봐.』

고작 그런 말밖에 하지 않았다.

창배는 그때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다. 환자 가운데 얼려에 한의사를 따라다녀서 제법 병들을 잡아 낸다는 풀팔이 영감은 창배의 병을 잘 잘을수 없는 병이라고 단정했다.

『나가 이 개새끼들아. 노이를이 사람 새끼나. 문동이는 사람 아니냐? 노이를이 변타덕에 나를 씹개처 푸지 않았는데 내가 아픈 줄 아냐? 난리 이 개새끼들아. 차라리 씨겨버 릴테니까.』

의사는 두번이나 그런 수모를 당하고는 다시 오려고 하지 않았다. 창배는 의사만 보면 더 몸씨가 심해지곤 했다.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아냐? 그 새끼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 사람이면, 아니 점하 있는 악마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거다. 해놓들이 불을 바른 건 그래도 나은거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새끼들에게 진찰을 받나? 안그래!』

창배는 만덕이와 윤근이에게 이렇게 악에 바친 소리를 했다.

『다시 그 새끼들 보게 하면 노이들도 그냥 안둔다.』

만덕이와 윤근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결심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이었다.

파도가 금방이라도 병신지대를 쓸어버릴 것처럼 세찼다. 문동지가 씩씩거리며 울었다. 말바람을 받은 고목들 날뛸이었다. 장문이 떨어질 거리며 흔들렸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낮부터 안팎을 갱기느라 부산을 떨었지만 그뿐 깨지는 소리와 쓸어져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이가 빳지 않은 장졸사이로 쥐파 람 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렸다. 바람 따이 나무들의 가지 찢어지는 소리도 들렸다.

『이걸 쉬면다, 이걸 쉬면다.』

만덕이가 창배를 붙잡고 어설 쯤을 물라댔다. 창배는 이불자락을 발아위고 한쪽벽에 머리를 찧혔었다.

『씨팔 새끼를 씨 인와?』

『씨지게 생겼데주 안은데. 내 밥을 빌지 않아. 니가 가봐. 빨리 빨리.』

만덕이가 벌써 일어나 쥐어 나갔다. 윤근이가 창배의 손을 잡았다.

창배는 현리를 붙잔 들어 등을 풀게될 쥐면서 버티었다.

『이 새기야 어디가 아픈거야? 말해봐! 말을해 이 새기야.』

윤근이가 창배의 마귀를 철석 철석 갈겼다. 그때도 어렸히 창배는 버티었다. 만술사이에서 붙은 피가 배어나왔다.

『씨팔 새끼들. 그럭으로 멀구으며. 이 새킨 죽어도 볼 수가 없대.』

만덕이가 방문을 밀쳐 열고 이렇게 소리쳤다.

윤근이가 팔주전자를 걸어왔다.

『그…… 아이그…… 팔을 작…』

팔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가자! 멕미고 가보자 가보거!』

만덕이가 이를 앙다물고 말했다.

윤근이와 만덕이는 밥 눈도록 창배를 뜻살게 굴었다. 창배는 말없이 공놔을 듣기만 했다.

『네가 미쳤었나봐.』

고작 그런 말밖에 하지 않았다.

창배는 그때부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다. 환자 가운데 얼려에 한의사를 따라다녀서 제법 병들을 잡아 낸다는 풀팔이 영감은 창배의 병을 잘 잘을수 없는 병이라고 단정했다.

『수상한 병들어. 큰 병원에 가볼수 있으면 가는게 좋을텐데…… 저 자식 고집이 제목을 잡는걸 모르니…』

창배는 아무리 말해도 의사에게는 가지 않겠다는 거였다.

『네가 쥐지고 말지…… 그 새끼들한테 진찰을 받으란 말이냐?』

창배의 고집은 쥐질 수 없었다.

『쌀고 씨아 말겨 아니냐 이 자식아. 니가 쥐지고 나면 우린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말이다.

윤근이가 우격다짐을 하다못해 이렇게 애원하기도 했다.

만덕이가 이렇게 소리치고 창배를 붙잡 업었다. 윤근이가 떠밀은 군물 밥요를 그 위에 덮어 씌웠다.

방을 자빠질 것처럼 앞바람이 불아부었다. 흙먼지가 앞을 분간할 수 없게 휘몰아쳤다. 군물 밥요 꼬트머리가 새차게 펄럭거렸다. 빗발이 무사람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윤근이가 밥요를 부욱 찢어서 창배의 목과 얼굴을 묶었다. 외동이 금방 방바닥으로 글러 떨어질 것처럼 흔들렸다.

어둠 속으로 어둠 속으로 발려를 일어섰다.

저만금 의무실 불빛이 보였다.

이튿날 오후에 남끝방글목으로 창배가 사람에 가는 걸 두 사람은지 커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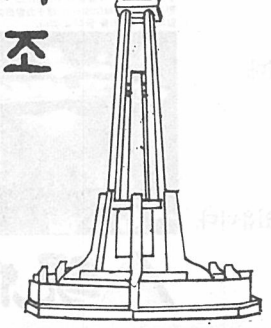
『저 새기 쥐졌는데 기도도 못해줬네. 불쌍 하나는 되게 했었는데. 영순이년. 그년…… 니기미……. 』

윤근이가 뜻을 풀며 마냈다.

『저 새기 정말 쥐진 거냐?』

만덕이가 갑욕의 정살 너머로 남끝방의 굴기를 바라 보면서 흔잡소리처럼 중얼였다.


진리 평화 창조



= 外大新聞 紙齡 300號 =

外大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태화 섬유 주식회사
사장 이광찬

유화 증권 주식회사
사장 송영균

한국 의류 수출조합
전무이사 고찬식

한국 섬유단체 연합회
사무총장 노진식

한국외국어대학동문회
회장 박필수

## 본보 Top기사를 통해 본 ——

# 외대, 외대인 그 영욕의 발자취

55년 4월 11일 창간된 외대학보는 올해로써 지령(紙齡) 300호 를 맞아 창간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보가 그동안 걸어온 월간(月刊), 격주간, 순간(旬刊), 주간발행화의 과정은 물 외대, 외대인의 영욕(榮辱)의 과정을 보여주고있는 바 우리의 「뿌리」를 찾아보는 작업은 성년(成年)외대의 도약을 앞에두고 뜻 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불행히도 본보창 간호부터 63년도까지의 보존권이 분실돼 이 시기의 학사(學史)를 읽어서 불수 없음에 유감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일단 64년이후 오늘까지의 족적을 더듬어 보는 노력이라도 동반시 해서는 안되겠기에 파거 64년이후 17년동안 본보에 게재된 1면 머릿기사(TOP기사)를 통해 우리의 선배들이 남기고간 흔향(薰香)을 맡고, 그 자취를 좇아보면서 당시 본대학이 슬쉬면 효휴의 백락을 마바 「그때 그 누스」를 간추려 본다.

이를 위해 편의상 64년이후 본보의 머릿기사를 장식한 많은 기사들중 「학생운동의과정과 전말(顚末)」 「학내 학생활동의 상태와 역사」 그리고 「본대학의 진보(進步)와 정체(停滯)의 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를 삼분(三分)했다.

제1기(期)는 63년 6.3 파동이후의 학내추이를 다룬 것으로64년부터69년 「3선개헌 파동」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상황이 대학가(街)를 지배했던 60년대를 잡았으며 70년대 벽두의 「교련반대시위」에서 75년 긴급조치 9호선포 이전(以前)까지를 제2기로 정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3기와 현재로 나누었는데 75년 「10월유신」이후 79년 10. 26 사태까지를 3기, 그 이후 오늘 본보지령 300호 직전까지를 「현재」로 다루었다.

이 중 10. 26사태 이후 발간된 본보의 머릿 기사를 통한 평가는 후대에게 미루기로하여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이 시기구분에있어서 학의문제인 「정치적상황」을 보기(分期)의 본수평으로 삼은 것은 첫째 지난날 대학의 많은 문제가 학외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 글 역시 이러한 「학생운동」을 사적(史的)인 면에서 일부분이나마소개하고자 했기때문이며 둘째, 학사체만의 활동이 「정기적」인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 제1기(64년~69년)

#### 1. 학생운동

「반·일회담 졸속타결 피로써 반대한다!」

64년 6월3일 한·일양국간 체결한 협정에 대한 소위 「한·일 굴욕외교」에 반대하는 학생데모가 서울을 비롯한 경향 각지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자 당시 정부는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하에도 불구하고 학원가에서는 「반·일협정 체결」을 질타(叱咤)하는 소리가 높아만 갔고 당시 본대학이 이의 선도적 역할을 맡고있을 무렵인 65년 4월20일자 (본보 88호)의 머릿기사였다.

당시 본대생들은 캠퍼스에서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성토하면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이 때의 본보를 보면 「을사가조인(한일협정지정) 을 즉시 무효화 하라」 「일제 36년의 치욕을 재씻던 말타」 는 등 반대구호들이 생생히 활자화 (活字化) 되어 있었다.

한편 이러한 진통을 거치는 중간 학생들은 경찰과 충돌하여 3명이 부상하고 17명 등이 연행되는 곤욕을 치루어야 했다. 또 학생들은 「한국 외국어대학 교육외교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에 보내는 메시지 등을 날독하면서 교내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원가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판단한 정부는 6·3사태이후 두번째의 「휴교령」을 선포했으나 교육외교에 대한 이론 지상들의 저항은 잠이기 앞이 6월25일자(92호)에는 「도다시 임시휴교」가 머릿기사로 등장하면서 「매모저지책」으로 상습화된 휴교령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다.

이어 7월15일자 (93호) 본보는 개강이후 시험과 동시에 방학에 끌리간 기이한 「조기방학」을 심리면서 학수상한 시험을 개탄하기도 했다.

당시의 캠퍼스에는 열화같은 기개와 열렬의 정신을 표표하는 소리가 드높았는가 하면 울분과 자조섞인 세글자이 교차하면 그 메아 시기였다.

이후 69년도까지 본대학의 학생운동은 계속되었다. 「6·8선거」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시위 및 성토데모가 열려 결국 조기방학에 들어가지 않을면 안되었고 (67년7월13일자118호) 69년에는 「3선개헌 반대시위」가 폭풍처럼 학원가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야말로 대학의 60년대는 「데모와 휴교의 4년」이라는 대명사를 날개돋게 불렀던 시대였다.

#### 2. 학생활동 학교의 변천과정

64년부터 69년까지 매년 본보의 머릿기사로 등장하고 있던 것은 「총학생회장 단 선거」와 「모의 UN총회」였다.

65년 5월10일자 (89호) 에는 총학생회장선거를 「단선제」로 한다는 결정이와 함께 표명돼 있었고 다음해66년 5월25일자(105호) 에는 대의원 총회의 결정으로 결국 「단선제」가 폭정됐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총학생회장선거는 다시 「복선제」로 퇴원되어 총학생회장으로 김승환군의 당선 (68년 6월20일자127호) 되었으나 한달차인 7월20일자(127호) 에는 당선자인 김승환군이 B학점미달로 당선이 무효화됨 웃지못할 사건이 일어나기도해 당시의 부결제 도 이 무렵이었다. (69년 1월22일·133호)·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사훈련」이 실시된 것은 바로 69년이었다. (69년 2월25일·134호)

### 제2기(70~75년5월)

#### 1. 학생운동

4.19여서부터 69년 3선개헌 반대시위에 이르기까지 60년대를 일관했던 학생운동은 70년대에도 여파는 아니었다.

「상황」으로 쳐는 침묵을 깊단 시위로 그 막을 이어갔다. 71년4월20일 (제152호) 자에 실린 「본대생 경찰과 충돌」기사는 70년대의 첫 학생시위의 발발을 알리고 있었다. 당시 전어 명의 학생들은 교련교육반대를 주장하면서 「교련교육이 순수 안보적 차원이 아닌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학생군사교육실시가 안보의식을 장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빚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시위는 6월25일자 (제154호)본보에도 보도돼었었으며 동년(同年) 11월5일 (제158호) 에는 이 틀인한 「유인형해제」를 요구한 선경식 (당시P.A·4) 군등 9명이 제적처분을 받고하고 있어 당시의 격렬했던 학생운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70년 벽두 「교련반대」로 시작된 학생운동은 73년 김대중씨 납치사건과 10월17일의 「유신 헌법」 단행으로 피크를 이루었다.

74년 11월1일, 197호의 본보는 당시의 어렵고 곤욕스러웠던 「학학의 박사일정표」를 이렇게 써고 있었다.

「휴강, 개강, 또 휴강, 캠퍼스엔 무거운 침묵」

그때 그 침묵이 무려 5년동안 캠퍼스에 만연됐음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었다. 75년 5월의 「긴급조치 9호 선포」는 이침묵이 상당한 기일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암신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2. 학생활동·학교의 변천과정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활동의 근간이 되는 총학생회와 여학생회가 환원논리를 발표하고 재정의 독립을 보게되었으니 이때가 70년 3월16일 (143호)였다.

이후 10월25일자(147호) 는 도서관 시설 확충 개편을 앞리고 있었으며 뒤이어 11월25일(148호) 에는 시청각교육 센터에 교육용 TV시설을 당시 국내대학으로는 최대규모로 학장, 본대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상징이 되기도했다.

71년에 들어서 1학년을 배상으로 유급제가 실시되기 시작했고 (3월30일자151호) 세계민속예술제가 열리기도했다.

본대학 인도어파가 생긴 것은 바로해인 72년도의 일이었으며 현재 동음되고있는 각 학과의 영문 표기가 이때부터 확립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1월 1일자 160호)

그리고 이 당시에도 본대학의 종합대학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져왔으나 방시 방송을 학장은 본보 72년 3월 15일자 162호의 「인터뷰」를통해 「당분간 종합대학화는 고려하지 않을 것과 우선 특성을 살린 발전에 주력할 것」을 밝히고 있었다.

한편 법정·상경학부의 계열별 모집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73년 초(176호) 였으며 이 때 장공건입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해에는 본대학 초대학장을 지낸 바 있는 안호상박사가 별세하기도 한 해였다.

또 73년말에는 71년이후 2년동안의 휴회를 마치고 모의 UN총회가 다시 열렸으나 이 때의 10회 총회를 끝으로 아직도 모의 UN총회는 부활되지 않고 있다.

# 한·일회담 졸속타결 피로써 반대한다

## 60년대의 대학·데모와 휴교의 4년

## 모의UN총회성행·67년 학교상징으로 비둘기 선정

### 제3기(75~79년)

#### 1. 학생운동

75년 5월 긴급조치 9호가 선포 (본보 호외발행) 되면서 학내 학생운동의 열기는 하향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75년도에는 「긴급조치 9호선포」에 반대하는 시위가 끝이지않아 결국 수업일수를 채우기위해 하기방학을 한달간 늦춰 8월 10일부터 실시하고 말았다. (6월1일자205호)

또 총학생회가 해체돼고 학도호국단 설치령이 공포되었던 것이 바로 이때였다.

이후 보도 검열과 언론규제에 따라 79년 10. 26 사태직전까지 산발적으로발생하고 있던 「학생시위」는 본보에서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 2. 학생활동, 학교의 변천과정

75년 학도호국단 설치령이 발표되고 동년 7월16일자 207호에는 학도호국단 발대식거행을 알리고있었다.

이때 생긴 「학도호국단은 5대를 거치면서 학내 학생동태만을 관장해오다가 지난 10. 26사태이후의 학원자율화 움직임에따라 해체되고 말았다.

한편 학사운영을 살펴보면 74년 폐지됐던. 유급제가 다시부활, 시행되기시작했고(75년 7월 1일자212호) 76년에는 이런어파가 신설 첫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78년에는 졸보학과가 등설되기도했다.

한편 77년 5월에는 제7대 학장으로 지금을 사임한 최한복박사가 취임했으며 11월에는 계절학교(Summer, Winter School) 의단계적인 폐지방안 폭정발표되었다. (11월21일자 251호)

78년에 들어서는 법정·상경학부 신입생들에게 외국어 부전공을 허용키로했는가 하면 (78년 1월1일 252호), 6월들어서 입시에 제2지망제제를 검토하기 시작해 다음해인 79년부터 이를 시행키로했다. (78년 9월11일자265호). 그리고 제2지망제는 어려가지 부작용이 드러나 79년 한해만 실시된채 단명하고말았다. (79년 6월11일자283호)

그러나 뒤이 뒤이 해도 가장획기적인 사건은 2부대학과 윤인본부의 설치였다.

78년 11월11일자 271호에는 2부대학의 운영계획이 확정됐음을 알리고 있고, 실제로 79년도 입학식에는 300명의 2부대학 신입생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79년 3월11일자276호). 또동인본보는 300명 정원으로 6개학과를 모집, 1년간 본보에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외에 동시 동역대학원이 설립됨 것도 이부합이었으며 (79년 6월 1일자 282호) 신학 도서관 건립 (78년 9월 1일자265호), 제5회세계민속예술제 부활등이 있따랐다.

연학과 학중정립을 주장하는 학교당국과 시류에편승한 재단법 학교당국의독선적인 학사운영등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사운영과 학교교사의 증축·증원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방관과 침묵의 자세로 일관했었던 시기가 바로 제3기였다.

그러나 안으로만 내연되던 학생들의 침묵과 방관은 급기야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해 「부·마사태」에 이어 산발적인 학내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외면했고, 본보도 이를 단 한자 보도할 수 없었다.

# 휴강, 개강 또 휴강 캠퍼스엔 무거운 침묵 <74.11.1>

# 정문일침의 역사 25선 選

## 하수도



# 한국주장대로 통일시킨다— 모의 UN총회

미학사회에서 일어나는 제(諸) 문제를 정문일침(頂門一鍼) 식으로 고찰어 미학인에게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성격을 띠고 제85호 (1965년1월31일자) 부터 시작된 「하수도」는 그동안 「이론추집」 「이론크로니클」과 함께 본보 최장수 고정 「칼럼」으로 독자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수도」는지난 72년 9월 16일자 (제174호) 부터 75년 9월 16일자 (제210호) 까지는 「유니토」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그 맥을 이어왔으나 제211호부터 다시 「하수도」로 명칭을 환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압축·응결된 표현으로 대학인들의 가슴과 폐결, 고민을 대변해온 「하수도」는 또다른 의미에서 생생한 외대역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보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십여년간의 「하수도」중 25개를 정선, 지나온 외대 26년, 외대학보 25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 학생회장 당선 무효, 당했구나— 3·15 망령

(66.11.18 제112호)

▲「꼼짝하는 대학」전국 총학생회의

도대체 어떠카길 웰 했길래—?—의국인—

졸업장을 목표로 배학기 쩔급한 셈입니다—결석상습생—

앞일을 생각하니 오시시 추워온다—무능교수—(66.12 20 제113호)

▲배모—취업—배모—조기방학.

몸이 근질 근질해서 잠이 안온다—경찰봉—

학업상황이 만심해서 잠이 안온다—학장—

품목금 아까와서잠이 안온다—학부형—

개학할 날 생각하니 잠이 안온다—위정자—(67.7. 13 제118호)

<「데모」에 연이은 휴업, 그리고 조기방학으로 한학기가 부결 (不決) 하다시피한 60년대의 암울했던 대학상 (像) 을 볼수 있다>

▲문교부, 대학에 배모 방지책 지시.

학생의 집합을 막기위해 5부제 수업을 하라—지시문A—

대학은 언제든지 휴업할 태세를 갖추라—지시문B—

경찰기동대에게 학생지도 교수 대우를 하라—지시문C—(67.8.30 제119호)

▲학생회장 당선 무효.

방울다구—3.15망령— 「에이그 쯧쯧쯧…」(68.7.20제128호)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으나 자격규정의 성적 B학점이상이 되지 못하여 당선이 취소되었다. 이를 계기로 총학생회장 자격규정에 성적의 제한을 두어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두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분간 냉장고로 사용할 수 있음—위정자—(67.7. 11.25 제148호)

▲불날씨는 희창한데 학생들 마음은 스산, 명랑한 분위기는 언제쯤?—우울생—

수업제한 품목중에 최루탄은 없었던가?

—대학가 주변 주인—(71. 4. 20. 제152호)

<다시 붉은 싶으나 꽃이 피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 최루탄으로 상황의 비애를 느끼며 눈물을 흘리기도했다>

▲학생회장단 선거의 앞자와 오예가.

—동문회 소집 「봉」—(71. 5. 25. 제153호)

▲교련반납 (返納) —교련관화 (完化) (71. 9. 15 제156호)

▲금년가을의 서리는 너무 이르고 피해가 극심함—중앙관상대—

각대학주년의 부동산 시세를 최루탄등의 교육공해로 재평가 조치함—국세청—(71. 11. 15 제158호)

▲품목금 자율화—대학자율화의 서막 (序幕) 이라고 일컬었다나—

중단없는 전진—중단없는 인상 (72. 2. 25 제161호)

▲총학생회장단 선거전 개막.

선관위 (選管委) 는 선관위 (詮衡委) ?, 공학금 (公託金) 은 공학금(空國金)?

(73. 6. 1 제180호)

▲시험시간표 발표되자 푸념이는 날개

—우리는 일년에 「비번」을 적이는 철새— (74. 5. 1 제190호)

▲최전투까시 갑푸쓰기 어언.

—학생회와 동문회는 나란히, 나란히, 일란성 쌍둥이 (74. 6. 1 제192호)

<총학생회 보직을 둘러싼 「동문회」와 「학생회」의 격박 양상을 고찬고 있다>

▲아버님 울혜도 「섬머스쿨 특강」에 합격 될 못실어 귀양이 좀 늦어지겠습니다. (74. 6. 16 제193호)

▲휴강속 알솔히 앉은 본보 창간 20주년—본명히 들려오는 건고한 그 성원(75. 5. 1 제203호)

▲천신만고 : 굶내 유상림 세계민속예술제—「연학 이슬」, 정평한전전 끝에 면학이 관장승? (75. 6. 16 제206호)

▲모의 올림픽 열려에 불안—의의는 참가에, 목적은 승리에…변질 모의 올림픽은 (끝) — (78. 4. 11 제25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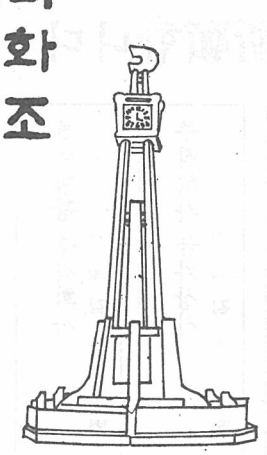
▲중간고사 5월 1일로 임박—실력고사 (枯死) 만기위한 고사 (告祀) 준비의 카운트 다운—(78. 4. 21 제258호)

▲「마음의벽을 허물고…」 새물결운동 성황—무너지지 않는 벽은 이미 벽이 아니였지 (78. 6. 1 제261호)

▲신입생 1,854명 선발—바야흐로 미비로와 동산이 인 (人동산이 될 것 같아 (80. 3. 11 제293호)<심각한 학내인구 정상을 「인(人) 동산」으로표현했다>

▲4·19학명 20돌. 폭우속 기념식—무궁화를 씌서주는 선배의 눈물, 젖은 눈물 마를때까지 앞으로, 앞으로… (80. 4. 22 제299호)

## 진리 평화 창조



外大新聞紙齡300號

外大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주식회사 탐구당 상무이사 홍 석 무

범한서적 주식회사 전무이사 윤 태 선

한양주택 주식회사 전무이사 주 상 국

상성물산 주식회사 이사 윤 기 선

혜인중기 주식회사 전무이사 손 규 식

사 장

사 장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사장 이김 동상 욱만

# 노동운동의 최근실태와 그 현장

# 노사분규 누구의 문제인가

본보 기동 취재팀

노사분규의 현장을 가다

10·26사태 이후 봇물 터지듯이 일어닥친 민주화의 바람은 고질화되어온 노사분쟁의 현장에도 파급되기 시작했다. 70년대 초반에 가해졌던 정치적 협박와 이에 뒷받침되어온 고도성장정책정책이 가져다준 숱한 부산물이 오늘에 이르러 극단적 형태로 폭도승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상처가 터져나오는 부에 없다는 당위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노사분규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얽힌채는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폭발한 우려할 만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치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예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를 두려 워지는 풍조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다. 급기시 되어온 노동운동이 우리의 경우는 얼마만큼 일약 (躍昇) 화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과 그동안의 상흔이 부여했던 악조건들이 근로자들에게 입마나 치명적이었던가 하는 점중은 만시지탄 (晩時之嘆) 의 느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본보 기동취재팀은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동일방직근로자 해고사건의 현장과 폭동으로까지 번진 사북사건의 발생지역 등을 이번을 취재하고 노사분쟁의 상징적 현 되어온 평화시장 피복근로자 문제가 최근에 일어나게된 진위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각 공단내에서 일고 있는 노동운동의 양태를 보고함으로써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가하는 명확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동일방직 근로자 해고사건

### 1. 정치적 경제적 악조건과 노동운동

노동운동 인천 갈리표 도시산업선교회 2 중에는 동일방직 해고자 복직추방위원회라는 것이 마련되어있다. 78년 3월14일 부당린처사를 감행한 회사측과 노조에 반대하여 단식농성을 벌였던 124명의 동일방직지부 노동자를 4월1일자로 해고한 회사측의 조치에 항거하여 부당한 해고의 철회를 요구하며부정을 벌이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그러나 동일방직 근로자해고 사태는 이처럼 무단해고의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단히 계속되어온 노사분규의 일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즉 70년대에 출발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지배하여온 고질적 노사분규의 양상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파악할수 있는 것이다.

5·16이후 정부는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제개발계획을통해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외자의 도입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선성장(先成長) 후분배(後分配) 라는 기치아래 장기집권을 바탕으로 한강한 정책을펴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노정(露呈)된 숱한 부작용은 지대중이 평가하는 성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노동피폐 현중으로 표면되고 있는 바와같이 이른바 유신체제라는 정치체 이데올로기와 이에 뒷받침되어온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은 필요악 (必要惡) 이라는 지배층의 묵인에 편승하여 희생자들을 양산 (量産) 하게 되었던것이다. 근로자의 피와 만요로 이룩된 경제성장이 누구를 위한것인가 하는 보편화된 질문이 이를만 마다로 압축하고 있다. 더우기 강력한 정책을 가속화시키기위하여 「국민 경제상의 필요」와 「국가안보상의 이유」라는 미명하에 근로자의 숨통을 막아놓는 제도적규제를 각도로 강화시키기 시작하여 71년12월17일 국가비상사태선포후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노동 계급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3 허중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노동력의 착취를 암시하는저임금과 이에 대한 정당한 요구의 관철을 절가능하게 만든 정치적 상황에서 동일방직사태는 출발하게 된다.

### 2. 사건의 경위와 노조문제

동일방직은 1946년에 심린림 주식회사로서 종방섬서, 동일방직 인천·인양·육성공장을 중설하는 상호일로의 기업으로발전되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기업확장에 비례하는 근로자의임금인상과 복지시설의 설비가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노사분규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85%이상이 여성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타분방의 업체에비해 상대적으로 취렬이 낮은 저임금이라는 기업가에있어의 의 호조건이 제어를 받게됨것은 70년대 접어서였다. 노동자들의 의식이고양되고 노동자의정당한 권익을 깨우치기위해 나선 도시산업 선교회가 노동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노사의중들을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976년1월부터 7월사이에 회사측은 섬유노조와 결탁하여 그때까지 활성화되어온 노조지부에공격을 가하면서 산업선교회를 불순세력으로 몰아부쳤던 것이다.

이는 섬유노조가 그런카지비록 국가보위법아래에서이지만 노조지부의 최소한의 노동운동을 보장해 온 자세에서 탈변하여 회사측 입장과 권력기구의 대변자로 나서게 되었던것으로 이사건은 어용화되기 시작한 섬유노조가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동일방직노조지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몇몇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부의 의의를 대표를 유산시키게 하였고 협력 명목만 노사분규 현장과 복리후생위원회 속은 설명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에의해 저지되었던 노조지부 분규폭력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것이 1978년의 오물사건이었다.

계속 반발을 보여오면 노조지부를 해산시키기 위해 집행부 (당시 섬유노조집행부) 서를 중심으로한 섬유노조가 동일방직노조 지부의 붕괴위원을 매수하여 1978년 2월21일 노조지부대회장 선출을 강제로 저지시키기 위해 오물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게한 폭력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섬유노조측은 노조지부의 내분에 의한 자체의 유발사태라고 규정함으로써 실각한 국면으로 치달게하였다. 또한 이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조사단마저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섬유노조가 폭력한 조직 임이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증명한 결과가 된것이다.

더우기 당시의 지부장인 이종다라 3명의 간부를 제명하게 되자 1978년 3월10일 노동절 기념식이 없던 장충체육관 앞에서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면 어용근로자들이 집단요구, 구타, 연행되는 사건으로 번져나갔던 것이다.

### 3. 124명의 해고와 농성의 현장

이상과 같은 대략적 사건경위에서 60여명이 입건, 구속되고 그중 10여명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복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노사분규에서 볼 수 없었던 오물사건은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사태를 조사 하기 위해 79년9월11일 국제자유섬유노조 협회가 파견한 조사단마저 섬유노조측의 배후사실에 매도되어 갔다가 제조사의 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데 오물사건을 갖추기 위해 회사와 섬유노조측은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건지김 바꾸기도했다는것이다.

본 취재반이 복직추방위원회를 나와 어의도 노총회관 4층을 찾은것은 부당하게 해고당한 124명의 근로자들 복직시킴 것과 전지부장및 3명의간부징계를 해제할 것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근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25일부터 단식에 돌어간28명의 어용근로자들은 4층 노총위원장실에 입요와 집무를 게고 누워 있었는데 모두들 빈사 상태에 빠진 처참한 모습요 보 본 기자들이 말을 전달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단식투쟁은 극한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노사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일마만큼 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힘의 균형이 가지는 조정의 의미가 상실된 현실에서 노사분제가 절어갈 길은 가시밭길일밖에이다. 한보씩의 양보를 주장하기에는 양자 혹은 한쪽만이 진일보했다는 노력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하는 문제를 보면이나 상기하면서도 우리로써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 부담감에 사로잡힌채 취재반을 꾸렸 일어 그들에게 유스를 사주는는 발밑이 발길을 돌릴수 없에 없었다.

## 청계지구 피복 근로자 현황

### 1. 노동운동과 자해 (自害)사건

전태일 (全泰壹) 사건의 현장이었던 청계지구 피복공장이 술렁이기 시작한지 17일만에 노사의 쉴만한 타협로 4월17일 정상으로 접어갔는는 보도가있었다. 청계지구 피복공장은 약 15,000명의 근로자를 가지고 평화시장, 동일섬가, 을지상가등 여러개의 시장으로 군 (郡) 을형성하고 있는 대단위 피복공장지대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하고 외치며 분신자살한 전태일의 절규처럼 피복공장의 노동착취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운동계열의 입금과 폭사 그리고 복지시설의 미비등 부당한 처우에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순노동부 중소기업체 평균, 분 활동의 이유로 지금껏 미진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한 극단적양상이 자해행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것은 혹연필, 어지가 곱혀 갖 주이지지 않은 고용주들의 갖 질화와 노동자의 저급적 미성숙이 빚어낸 비극적 상흔인것이다. 따라서 전태일사건은 우리의 노동운동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 2. 최저 생계비와 임금착취

박현채교수는 노동운동의 경제를 경제투쟁·정치투쟁·이론투쟁으로 구분시어 설명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투쟁 즉 임금인상이나 노동 숙기소됨 노조운동 자면적 장 기표적의 재조자정에서 이소의 서의 노동문제에 관한 중언이 법정모독죄에 걸려 구속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노동청이 임금 29% 인상, 최저임 10인 이상 100%실시의 조정안을 노사협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재함으로써 4월17일 이사건을 일단락 짓게 하였다.

### 3. 현재의실태와문제점

청계피복공단이 1만5천명의 거대한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개개의 공장이 작반 노동력에 의존했어방 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혹사당해 왔던 것이다.

또한 고용주들의 과중한 세금에 의해서는 나아가는 한다고 이중고를 겪기가지 했던것이다. 이에 노조지부는 교통요금을 올리지 않는 면신 법인체를 면제해 주는 순수회사에 폭육한 경제를 이곳에도 적용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있다.

귀일위전 또한 내수 부실하여 상가지 진물구조로 인해분 쫓이 팔아되고 거의가 1평미만의 좁은 면적에서 불편한작업을 하고 있었다. 쉽게이 가 심신체적 장애를 초래할 우려마저 주고 있다. 복지시설은 전무상태였고 그나마 복지의원은 노동절단속을 위한 명목에 불과함을 취하고있는실정이었다.

4월17일 타결 이후의 상황도 별반한 것은 아니었다. 농성에 참가한 경을 푸달결국의 제의하여 부당해고를 지키거나 수지상 분을 받고타고취 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법적인 기능공수를 갖추어 명목상 임금은 인하되 상태로지 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전면계개선책이 없이는 도타지 국한의 사태가 되요미라는 보장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 사북(舍北) 노사 문제

### 1. 구조적 부조리와 사기저하

4월을 정점했던 사북폭동의 이 피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수 있을 것이다.

고도성장정책이 빚어낸 하층근로자에 대한 냉혹는 더욱 심각한 사태를 낳기전에 수정되어 안정성장정책으로 수정되어야할 것이고 노동자계층의 자기이익 추구에대한 과정은 정부나 자본에대한 시혜 (施惠) 요구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당한 권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생존권의 확보와 적절히 생산자로서 사회적 재생산에의 기여 즉 창조력노동에 의한 자기기여의 정당한 권리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 그밖의 경우

H제과, L제과 같은 대 대이어의 근로자에 대한 실태도 다른 업체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H제과에서 장제로 해고된 여성근로자의 예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근무의 주장에 대한 반대급부였던 것이다. 하루 12시간의 작업과 한주일씩 꼬박 다치는 철야근무의 혹사를 견디다 못해 정당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지만 「불순한 행동」으로 「다른 이들 선동」했다는 이유로 장제사표를 받아 9명의 근로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있었던 것이다.

인천제강 일신제강 등에서도 노조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지부장 퇴진과 임금인상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최근 폭력사태로까지 화한 부산의 동국제강도 수년전 노조가 생겼을나 급속도조산하 노조가 회사와 결탁하여 노조를 폐쇄시키게 되자 이에 자극받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반응을 일으켰던것이라고 「사회선교 협의회 노동문제 상담소」김말숙 소장은 말하고 있다.

결국 노동운동은 폐쇄적인 상황이었던 반면 극단적이고 불행한 경우로까지 번진 예가 대부분인 셈이다.

정치, 경제적 악천후 속에서 노동운동의 양상은 노동조건의 개선, 노임의 인상등 경제적 요구를 내세우는데 그쳤지만 집단행동을 제어하는 「국가보위법」아래에 그들의 피생만 초래한 결과를 낳게 하였다.

## 맺으며

「드락카」라는 경제학자는 자본주의의 실제를 윤리적 근거의 상실에로이라고 논박하면서 자본주의의 존속, 번영을 위해 기업의 최대이윤 추구를 버리고 필요최저한의 이윤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고있다. 아울러 혁신적 자본주의는 노동력의 상품화 사상을 버리고 노동자를 인격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풍랑의 요로 확정 가능한 GNP위장은 흘로 (flow)의 국면화가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노동자에게 과연 얼마만큼 유익하게 되었는가. 놀상 능의되는 저임금사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체제가 빚은 오류를 통해 노동운동자는 노동운동 한번 펴보지 못하고, 단식농성이나 자해행위등의 비극적 상황으로 몰게했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더우기 불순세력으로가지 화해에석되어 육고를 치로 전하는 통의 화생을 누가 내린 명령인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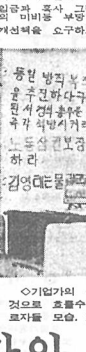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국가보위법」의 철폐와 노동 3권을 보장하는는 것이다. 당연한 주장이고 당연히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보장이 있다하더라도 기업가들을 지배인 비양심적 기업인이 존재하는 한 노동운동은 결코 낙관적인 것으로 흐를 수 없고 노동자 자신들의 각성도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폭력사태는 노동운동이라는 순수한 자기요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명심하고 집단이어 조직력이고 평화적 시위나 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쌓여왔던 구악 (舊惡)을 하나하나 해체나가야 할 것이다.

# 경제성장의 주역들이 곤욕 치러

## 「동일방직」「청계 피복 사태」, 오랜 누적결과 노동운동에 폭력 개입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 고질화된 노사문제의 극단적 노정

### 정부의 시혜가 아닌 기본권적 생존권이 확보되어야 국가보위법이 노동문제를 안으로 곪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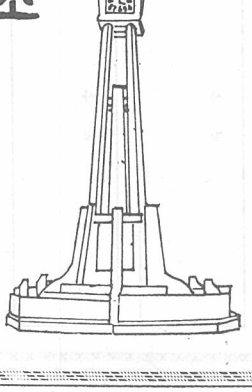



◇기업가의 윤리를 저버린 비양심적인 기업인이 존재하는한 노동운동은 결코 낙관적인 것으로 흐를수 없다. (사진은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농성중인 동일방직 복직투쟁위원회 근로자들 모습.)


外大新聞紙齡 300號

外大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진리 평화 창조



세기음악학원 원장 김복홍

동양철관공업주식회사 전무이사 박영호

주식회사 평창개발 사장 고규찬

조흔산업 주식회사 사장 민진평

(주)K·D인터내쇼날상사 사장 용을식

주식회사 금가상사 사장 김철

롯데관광 주식회사 사장 김기병

버너양행 사장 안인호

## 대학 언론

# 그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유 재 천
<서강대교수·
신문방송학>

우리나라 대학신문의 역사도 이제 약35년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35년은우리나라의 현대사가 그러하듯이 대학신문의 경우에도 평국(平局)의 길이었다. 때 방직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대학 신문은 6.25동란을 겪는 동안 발전을 저지당해 왔었고 그 나마 70년대에는 대학신문이 대학언론인의 손에서벗나가 있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대학신문의역사가 비록 35년이라고 하지만 대학신문이 대학의언론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때는 극히 짧은 기간동안 뿐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런 까닭에서 인지 불라도 우리나라 대학신문이 당연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서 제일 혼돈속에 빠져있는것이 대학신문의 성격정립과 관련된 과제인것 같다.

우리는 흔히 대학신문을 「아카데미즘」의 기능과 함께 언론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신문은 대학이라는 특수한 사회집단의 신문인 이상 무엇보다도 앞서 학문의 전수와 발전에 이바지해야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학사회의 정보와 의견을전달해야 한다는 언론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하겠다는 기대를 타당이 만족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는 대학신문이 학교의 홍보매체이어야 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걸ut어져 왔다.

대학신문의 기능에 대한 이와같은 관점들은 대학신문의 성격을 복합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즉「아카데미즘」의 기능에 대한 강조는 대학신문으로 하여금 교육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성격을 갖게 만들었고, 학교의 홍보매체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대학신문에게 기관지적인 성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대학신문이 학내의 언론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학신문의 성격을 독립된 언론으로 파악하게끔 만들었다.

결국 이와같은 세가지의 성격이 미분화된채 갈등속에서 공존해 왔던 것이 지난날의 우리나라 대학신문이었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신문이 당면한 과제는 그와 같이 미분화된 대학신문의 성격을 명백하게 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작업의 방향은 우선 대학신문의 기관지적 성격을 배제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대학신문이 학교의 홍보매체적인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대학신문이 학교의 기관지적 성격에서 벗어나 독립된 언론매체로 남는다고 할지라도 대학을 위한 홍보매체의 기능은 하기 마련이다. 어떤 대학신문이이 자기일쯤에 떡칠을 하는 신문을 만들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해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므로 학교당국이 대학신문에 대해 기관지적 성격을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뜻에서 기관지적 성격은 배제되어도 좋을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음, 대학신문이 「아카데미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몇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신문이「아카데미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당위론 전제로 하고 대학신문이 고도의 학문적 기능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학신문이 「아카데미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곧 대학신문이는 수준의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확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와같은 학술논문은 신문이 아닌 학술전문잡지에실리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학신문이「아카데미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학술연구지제와 관련시켜 성각할 것이 아니라오히려 교육적 기능의 측면에서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뿐만아니라「아카데미즘」의 기능을 언론의 기능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언론은「아카데미즘」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원래 「저널리즘」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궁극적인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도>하는 일을 뜻한다. 그러나 대학의 「저널리즘」은 일반사회의 언론과달리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보도하는데만 그쳐야할 편집적인 요청을 갖고있지않다. 속보성의 제약을 크게 받는 것도 아니요 사건중심의 시사문제에만 민감할필요도 없다. 따라서 대학사회의 「저널리즘」은 어떤면상을 <연구>해서 그 면상이 지닌 의미와 성격을 결저하게 파헤치는 작업, 즉「아카데미즘」의 구실을해야만 한다. 이말은 대학신문은 「아카데미즘」인 「저널리즘」이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학신문의「아카데미즘」적 기능을이와같은 문제속에서 이해해야 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대학신문이 정립해야 할 성격은 자명해진 셈이다. 말할것도 없이 대학신문은 대학사회의 언론이어야 한다. 대학신문을 대학의 홍보매체나 학문연마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학신문은 대학의 언론으로서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의 관심사를 보도하고 그것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제공 하는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대학인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것이비록 정치문제일지라도, 「아카데미즘」하게 다루어야 한다.

대학신문이 이상과 같이 대학의 언론으로서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신문의 독립이 필요하다. 대학신문은 학교당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은 어떤 외부로부터의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워야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대학신문의 편집의 자율화가 보장되어야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조건이있다. 그것은 학생들 스스로가자율적인 존재이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능력, 모든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찾추어야할 균형감각,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해줄줄 아는 민주적인 태도, 자신의 의견에도 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겸허한 정신과 인격바도 그럴듯을 시정할 줄아는 용기, 그리고 기자로서 지켜야할 윤리강을 갖출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언론인이 해야할 바는 대학신문의 독립을 위한 자율성의 제고에 있다고 할수있겠다.

이와함께 우리는 대학신문의 제도적 독립은 물론 실질적인 제작상의 독립을 위해 우선 몇가지 자율책을 이룰 필요가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학생편집장은 학교의 간섭없이 학생기자들 스스로가 선출하여야 하며 편집회의 역시 학생기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것이다.

## 「아카데미즘」의 기능수행

###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 해야 대학신문의 성격정립이 당면과제

대학사회의 저널리즘은 어떤 현상을 <연구>해서 그현상이 지닌 의미와 성격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작업, 즉「아카데미즘」의 구실을 해야만 한다

—본문중에서—

## 「자율권」보장이 선결 문제

### 외부세력의 간섭배제 필수 불가결해

이상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신문이「아카데미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당위론 전제로 하고 대학신문이 고도의 학문적 기능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학신문이 「아카데미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곧 대학신문이는 수준의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확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와같은 학술논문은 신문이 아닌 학술전문잡지에실리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학신문이「아카데미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학술연구지제와 관련시켜 성각할 것이 아니라오히려 교육적 기능의 측면에서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뿐만아니라「아카데미즘」의 기능을 언론의 기능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언론은「아카데미즘」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원래 「저널리즘」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궁극적인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도>하는 일을 뜻한다. 그러나 대학의 「저널리즘」은 일반사회의 언론과달리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보도하는데만 그쳐야할 편집적인 요청을 갖고있지않다. 속보성의 제약을 크게 받는 것도 아니요 사건중심의 시사문제에만 민감할필요도 없다. 따라서 대학사회의 「저널리즘」은 어떤면상을 <연구>해서 그 면상이 지닌 의미와 성격을 결저하게 파헤치는 작업, 즉「아카데미즘」의 구실을해야만 한다. 이말은 대학신문은 「아카데미즘」인 「저널리즘」이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학신문의「아카데미즘」적 기능을이와같은 문제속에서 이해해야 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대학신문이 정립해야 할 성격은 자명해진 셈이다. 말할것도 없이 대학신문은 대학사회의 언론이어야 한다. 대학신문을 대학의 홍보매체나 학문연마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학신문은 대학의 언론으로서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의 관심사를 보도하고 그것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제공 하는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대학인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것이비록 정치문제일지라도, 「아카데미즘」하게 다루어야 한다.

대학신문이 이상과 같이 대학의 언론으로서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신문의 독립이 필요하다. 대학신문은 학교당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은 어떤 외부로부터의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워야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대학신문의 편집의 자율화가 보장되어야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조건이있다. 그것은 학생들 스스로가자율적인 존재이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능력, 모든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찾추어야할 균형감각,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해줄줄 아는 민주적인 태도, 자신의 의견에도 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겸허한 정신과 인격바도 그럴듯을 시정할 줄아는 용기, 그리고 기자로서 지켜야할 윤리강을 갖출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언론인이 해야할 바는 대학신문의 독립을 위한 자율성의 제고에 있다고 할수있겠다.

이와함께 우리는 대학신문의 제도적 독립은 물론 실질적인 제작상의 독립을 위해 우선 몇가지 자율책을 이룰 필요가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학생편집장은 학교의 간섭없이 학생기자들 스스로가 선출하여야 하며 편집회의 역시 학생기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것이다.

## 대학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문제는

### 「아카데미즘」의 기능수행

###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 해야 대학신문의 성격정립이 당면과제

—본문중에서—

한 대학의 커리큘럼을살펴보면 그 대학의 교육방향과 특성이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대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어학에 역점을 둔것을 쉽게 찾아낼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상적인 커리큘럼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문제점 역시 상당수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크게 대학교육 근본이념에의 부합여부라는 원론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의 두가지로 언약해지고 있어 오히려 후자의 경우는 「불만」으로 나타나고있다.

또한 학생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나 바라는 커리큘럼을 종합해보면 그 요구는 각 학부별로 공통된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목표의 기본을 「전인적적 인간형성」에 두었을 때, 이의 실현을위한 교과과정의 편성은 순수 교육지향적 입장과 시류에 따른 대학밖의 제반 조건의 범람, 시대나 환경에 의해 변화하는 학생의 의식, 요구등이 반영된 커리큘럼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과정의 편성에는 몇가지 근본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어 대학의 자율적인 커리큘럼의 편성은 곧 그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

그 첫째는 예가 실험대학제도로 인한 교양필수과목의 제정이다. 실험대학요로 지정된 대학은 졸업학점으로 14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국어, 국민윤리등의 필수교양과목이 강제적있어. 본대학의 경우 전공학점을 빌어오지 않고는 교양선택이 불가능하다.

여기에서에 학생들은 교양선택제도를 두어 자신이 듣고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려어강좌나 사회과학분야, 미학, 심리학등의 철학강좌, 논문지도등 타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좌를 본대학에도설치 교양의 폭을 넓혀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교양학부의 한 교수는 어학공부만으로는 교육의 근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어학강좌와 동시에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전반에 걸친 강의가 각 분과별별로 곁들어지는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학 전공교수는 어학은 단시일내에마스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공학점을 현재의 80학점이하로 줄일수는 없다는의견으로, 교양과정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전공과정의 경우도 문제는 비슷하다. 대학교육에대한 평준화 시간배정과 선택의 범위가 적은 커리큘럼의 경직성은 현재까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외국어학부의 커리큘럼에 있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외국어를 바탕으로 하는 본대학의 특성에 비추어 어학평준현상은 타당성이 있기는하나, 자칫 대학차원에서 습득해야할 합리적 사고력, 어려한 현상을 종합, 분석할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소홀할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어학은 수단이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문학이나 인문·사회과학에 눈돌릴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커리큘럼 운영에 있어상 「지적되고 있는 바는 「강의내용의 중복」이다. 이는 기획실에 의하면 각 학과별로 교수와 학생간에 조정되어야 할 문제라 볼 이하고 있는데 「타이틀을 다른데, 듣고 보면 이미 들은 강의와 비동소이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엔 미흡한 감이 있지 않다.

「지역사정」이나 「시사외국어」강좌의 경우도 강좌식 학석위주의 강의가 되고있는 학과가 대부분으로 유년부실한 강좌는 「하루속히 개설되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원어강의도 금학기 들어서는 거의 운용되고있는 학과가 없다고 한다.

한편 아랍어와 서반아어가 주로 쓰이는 제3세계권과 동남아 각국어의 경우 학생들은 제3세계의 비교문학, 지역사정등을 커리큘럼에 삽입시켜야하며 실질적으로 제대로의 강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전결 기획실장은 「각 학과의 커리큘럼은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며 련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전제한후 각국 지역사정의 필요성을 결감, 현재 7개학과에서 지역사정 강의 교재준비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지역학 전공교수 충원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말했다.

빈정, 상경학부에서는 교수의 일방적인 주인식 강의보다 세미나 위주의 강의와 논문지도등의 종합적 사고능력을 기를수 있는 강의 방식을 원하고 있다.

또한 빈정, 상경학부 역시 어학에 역점을 둔 커리큘럼으로 경제학부의 경우 원서강독이 12학점이나 되어 필요한 과목을 못듣는 나 사회과학분야, 미학, 심리학등의 철학강좌, 논문지도등 타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좌를 본대학에도설치 교양의 폭을 넓혀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교양학부의 한 교수는 어학공부만으로는 교육의 근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어학강좌와 동시에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전반에 걸친 강의가 각 분과별별로 곁들어지는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학 전공교수는 어학은 단시일내에마스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공학점을 현재의 80학점이하로 줄일수는 없다는의견으로, 교양과정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전공과정의 경우도 문제는 비슷하다. 대학교육에대한 평준화 시간배정과 선택의 범위가 적은 커리큘럼의 경직성은 현재까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외국어학부의 커리큘럼에 있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외국어를 바탕으로하는 본대학의 특성에 비추어 어학평준현상은 타당성이 있기는하나, 자칫 대학차원에서 습득해야할 합리적 사고력, 어려한 현상을 종합, 분석할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소홀할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어학은 수단이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문학이나 인문·사회과학에 눈돌릴수 있도록 방향

<차 례>

1. 학칙
2. 학생대표기구
3. 학내언론, 출판
4. 서어들
5. 커리큘럼
6. 에필로그

이러한 일은 학교운영제도의 불합리성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실질적으로 종합대학의 규모를 넘어선 본대학인 숙명여자대학교 라는 지기 독립되기 용이해로 단과대의 운영방침을 채택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학부간의 시간표 중복을 불가피한 것이다.

2부대학과 대학원, 연수원, 동시통역대학원의 강의와도 일관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본대학으로서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할 기현상이 아닐수 없다.

부전공제도를 폭넓 시켜 경학단계에 있는 점은 본대학의 장점이라 할수있으며 이의 불충분한일을 보완, 개선함을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이렇게 볼때 의국어 부전공의 부실한 제도는 선택학생들의 의견을 심분 반영해야 할것이다.

동시, 부전공, 선택학생의 도중전환을 위기위해 사전에 부전공 선택에대한 오리엔테이션시간을 갖는것이 바람직한것같다.

한편, 2부대학의 경우실험대학이 아닌 때문에 1백6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5학년과정을 잡경력으로 4년으로

## 규모와 다른 운영 불합리

### 어학과 문학의 균형점 찾아야 할 때

### 원칙적인 문제보다 운용문제 더 심각

을 제시해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커리큘럼 운영에 있어상 「지적되고 있는 바는 「강의내용의 중복」이다. 이는 기획실에 의하면 각 학과별로 교수와 학생간에 조정되어야 할 문제라 볼이하고 있는데 「타이틀을 다른데, 듣고 보면 이미 들은 강의와 비동소이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엔 미흡한 감이 있지 않다.

「지역사정」이나 「시사외국어」강좌의 경우도 강독식 학석위주의 강의가 되고있는 학과가 대부분으로 유년부실한 강좌는 「하루속히 개설되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원어강의도 금학기 들어서는 거의 운용되고있는 학과가 없다고 한다.

한편 아랍어와 서반아어가 주로 쓰이는 제3세계권과 동남아 각국어의 경우 학생들은 제3세계의 비교문학, 지역사정등을 커리큘럼에 삽입시켜야하며 실질적으로 제대로의 강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전결 기획실장은 「각 학과의 커리큘럼은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며 련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전제한후 각국 지역사정의 필요성을 결감, 현재 7개학과에서 지역사정 강의 교재준비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지역학 전공교수 충원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말했다.

빈정, 상경학부에서는 교수의 일방적인 주인식 강의보다 세미나 위주의 강의와 논문지도등의 종합적 사고능력을 기를수 있는 강의방식을 원하고 있다.

또한 빈정, 상경학부 역시 어학에 역점을 둔 커리큘럼으로 경제학부의 경우 원서강독이 12학점이나 되어 필요한 과목을 못듣

이러한 일은 학교운영제도의 불합리성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실질적으로 종합대학의 규모를 넘어선 본대학인 숙명여자대학교 라는 지기 독립되기 용이해로 단과대의 운영방침을 채택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학부간의 시간표 중복을 불가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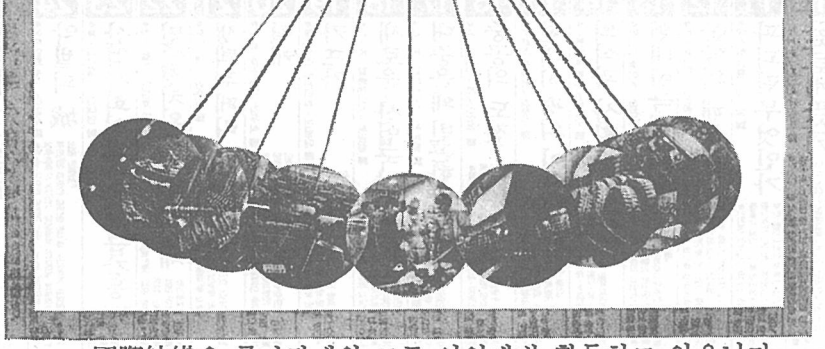
2부대학과 대학원, 연수원, 동시통역대학원의 강의와도 일관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본대학으로서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할 기현상이 아닐수 없다.

부전공제도를 폭넓 시켜 경학단계에 있는 점은 본대학의 장점이라 할수있으며 이의 불충분한일을 보완, 개선함을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이렇게 볼때 의국어 부전공의 부실한 제도는 선택학생들의 의견을 심분 반영해야 할것이다.

동시, 부전공, 선택학생의 도중전환을 위기위해 사전에 부전공 선택에대한 오리엔테이션시간을 갖는것이 바람직한것같다.

한편, 2부대학의 경우실험대학이 아닌 때문에 1백6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5학년과정을 잡경력으로 4년으로


# 지금 이순간에도…



國際紡織은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읍니다

祝 發 展

外大新聞 紙齡 300號를 맞이하여
大學言論暢達의 旗手가 되기를
祈願합니다

대표이사 윤 영 종

國際紡織株式會社


### 얼굴보다 잿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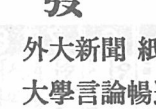
○…출산조치고 쉽사 의관원의 타협다운한 설교를 만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한데.

최근 불리는 바에 의하면 바로 이「쉽사의서」들이 좀은 학내에서 대거 생성실로에 있다는 것. 이 세련된 「의관원」들의 활동은 얼불보다 잿밥(?) 에 관심이 많아 관록활동에는 흥미가없고 방에 틀이 없나를 살피는지 캠퍼스 이곳 저곳을 기웃거린다는데.

의대인 제위, 안성 좀 합시다. 얼마나 책을 안 읽기로 경쟁이 났길래 이보륙 「아저씨」들의 주(主) 「관박」대상이 되었겠소.

○…「그날」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기는 바린 모양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웃지못할 얘기가있어.

모처에서는 최근 대학가를 주름잡고 있는 「교수문제」에 대해 파종회를 열고 열띤 토의를 벌였다는데.




문제는 「교수문제」에 관한 어떤 안건을 놓고 가부 (可否) 를결정함에 있어, 투표로할 것인가말것인가에대한 투표를 부기명으로할 것인가 아니면 거수로 할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다시…하는 식으로 「투표」가 남용되어 급기야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렸타고.

「투표만능시대」의 전성기가 도래한 것은 그동안 못다한 투표를 몰아서 하려는 애쓴한 (?) 심정의 발표인지….

○…「국보」를 잃어버린 슬픔을 가눌 길 없어 크로니클 자판밖을 자꾸만 고다는데.

본 「의대학보」지 원 300호 기념특집을 위해 도서관에 보관중인학보철을 찾던 중 창간호~66년까지의 학보철이 없어진 중차대인 사실을 발견. 「미스테리」와도 같은 이 비보 (悲報) 에 접한 본사에서는 한동안 망연 자실하 고 말았는데.

잃어버린 「역사」를 찾사오니 누군가 도와주실분을 구합니다.

○…고고고 (呱呱) 의 울음을 드높이고 출범한 18대 총학생회를 우려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는 부류가 계 있는 모양.

이를 입증시켜 주기라도 하듯 일전 총학생회와 어학생회가 비품 (備品) 구입을둘러싸고 어학생회는 독립된 위치이니 독자적으로 신청할수 있다 아니다로 일대 공방전을 벌였타고.

이른바 「쓰테기통 정말의 결전 (血戰) 」이라 인구 (人口) 에 회자 (膾炙) 되는 이 해프닝엔 「퍼스트 레이디 (First lady) 를 레이디 퍼스트 (Lady first) 로 여우하여 입앙기테론』이란 시니컬한 콘펭이 내려져.

「레이디·퍼스트」

# 성년 외대학보에 부쳐

권 영 욱

머칠전 요즘 한창 발열을 빚고 있는 모대학 출신 친구를 만나뵈이 있었다.

그에서 제학시절 대학신문에 참여했었고 폐라, 편집권을 놓고 대학당국과 당시 자주 마찰을 야기한 관계로 모처럼 뵈임을 하는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다.

따라서 대학당국은 선배들로구성된 중재단을 구성했고 그친구도 중재단의 일원으로 농성중인 학생들을 대면하게 파견된 것이다.

그때나 농성학생들의 반응은 외의로 냉담했고 70년대의 유행어인 「사구라」소리를 듣고 손을 들고 말았다며 주년을 놓이 놓았다. 제학시절 선에서보면 캠퍼스 그리고 졸업후 밖에서 보는 캠퍼스의 상황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요즘 캠퍼스와 사회각층에서 민주화 바람이 일고있다. 「민주화」란 단어는 신문의 지면에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거의 신부화하고시 하고 있다. 이런 주화의 반작용은 학원문제, 노사문제에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그중만 광였던일종의 「스트레스」가 가장 용어리졌던 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수렴하고 계도할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하여야 할까?

무말할것도 없이 언론이다.

캠퍼스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파도기적 현상을 신문 방송이 이를 자제·계도할수 있어야만 그 학내문제는 대학은론이 흡수해 주어야 한다.

이와같이 대학신문이 대학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학신문의 구성원은 지식그룹내에서의 지성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대학은 어디까지나 지식집단이지 지성이 모인 곳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지식집단으로만 잔존해한채 입은 대학을 기업화한 일부학원경영자와 이를 묵인한 당국의 공동책임이라고 밖에 볼수 없지만 상적으로 경왕된 대학사회에서의 언론기능의 역할은 대학신문 잡지지들에게 달려있다. 한에로 한창 꽃의를 자아내고 있는 이율포부문제만 하더라도 그 기준이 애매하다.

대학은 잡다한 학문과 논리를 연구, 토론, 개진할수 있는 곳일진대 주관적인 견해의 피력,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견지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밖에 되지않는다.

따라서 이와같은 학림내 어떠문제점들을 여과하여 지상(紙上) 토론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하는 지성을 대학신문이 가져야 한다.

물론, 대학신문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모순내지는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

타파하는 대학신문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2~3년의 주기적인 「싸이클」이다. 입학하자마자 대학신문 편집에도 전념 (關與) 하고 있웃이 대학 신문을 제작 (提起) 하여 대학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提示) 하며, 대학문화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동의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과거 유신체제하에 있어서의 대학신문은 권력권의 자율성을 박탈당했음은 물론 지도교수의 간섭 (기사선택, 기사내용, 기사배치, 기사성격 등에 이르기까지의 신문제작 전반에 걸쳐) 와 원고검열, 원고수정및 삭제 그리고 학생기자들에 대한 음성계인 활동제약 등으로 상당히 그활동이 위축당했었으며 나아가 대학신문의 성격까지 학교 당국의 홍보및 「기관지」로서 쇠락 변질되어왔던것 같다. 그러나 작금(昨今) 의 정치제상황의 변동으로 사회제부문 (諸部門) 에서 민주화, 자유화, 자율화가 추구되고 이에따라 대학내, 특히 대학 언론이 해결과제가 있는 길이 열린것 이다.

이에 서무에 기술한 방향설을 기본으로 하고 그동안 우리대학 신문 즉 외대학보를 보면서 느꼈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와 더불어 앞으로 지향해 나갈 방향 보고자 한다. 첫째, 학보는 학생들에게 폭넓게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외부인사나 교수의 글을 필수 있으면 좋이고 다소 서투르더라도 학생의 글을 실을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제공했으면 한다. 물론, 학보는 독자의 기본적 성향 (性向) 을 항상 인지했으면한다. 독자란 상상외로 소심해 어쩌구 저쩌구 신문에 보도된 것의 대부분을 소화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裏面) 사실의 보도, 해설기사의 작성등이 이 목적을위해서 일도있게 활용되어야 하겠다. 세째, 기사의 폭정인 정확한 논리, 건전한 관점과 책임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확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심이 날때에는 사실이확인될수 있을때까지 손을 대지 말아라』는 말이다. 중설(風說) 과 잘못 입증되지 못한 자료를 「뉴스」로 사용하는 것과, 틀림없이 정확하나 당장에는공식적인 확인을 얻을 수 없는 「뉴스」를 공개하는 것과는현 양지사 (天壤之差) 가 있다고하겠다. 논리면에선 소위 「미문(美文)」이라는 문제, 이를테면 박연만 보려화, 보시 (敎授), 저에 있지 않는 화려한 표현, 불필요 없는 구절, 불필요한 수식어를 늘어 놓는 것이 문학적이라는 그릇된 생각때문에 이와같은문장상의 가학행위 (?) 를 조심해야 하겠다.

진리한 관단과 책임면에서, 소위 객관성을 가장한 도피는 써어도 비겁해야됨다. 항상 공기라는 대학신문의 입장에서, 용기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발표할수 있어야 하겠다. 비록, 거연문물에서 보다 더 신경을써야 할 것이다. 신문은 언제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에 박힌 비열이라든가 사방마루, 미비로써, 빈의자등 「밥벌」의 무엇한 특성을 찾기 어렵고 「매거진」이 할 일에 가까운 글들을 편집자의 주관한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다 참의력이고 독특한 기획이 급일없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압다면 저인 (紙面) 화장을 꾀하여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요면 된다.

물론 지면증가에 따라 질적인 희미도 수반하고 특히 기자의 증원, 신문제작과정의 효율적인 분업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다섯째 신문은 무엇보다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오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애써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나 논문에 있어서의 한자사용과 문장의 선명성등도 계속적인 고려를 했으면좋겠다.

이상과 같이 우선적으로 언급할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대학신문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탑일 꽤필 의식을 가진 독자들을 상대로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한 접근을 한다면 보다 풍실하고 다양해져 창조적인 지면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강 석 규

## 보다 창조적인 신문 되었으면

### 주도 면밀한 지면 활용으로

### 독자에게 폭 넓은 문호 개방을

지금까지의 학교기관지나 공고란 정도에 그친 제넬리즘이라는 일부의 특평을 지양시킬 수 있어야한다. 그리하여 학술적이며, 대학가 전체에가지도달할 미일 수 있는 체계화된 사회연상의 보도, 해설 비판등으로 다양성있는 아카데미즘의 영역가지에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한사람의 독자 (讀者) 로서 가져게되는 것이다.

외대학보기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건투를 빈다.

<서반아어과 · 3>

## 그해 달팡

—황사(黃沙), 그 허리마고 떠나간 취발이 심(沈)을 위하여

김 상 철

철불살라 놀을 태하면 거운 솔으로 잘리는 살 쌓이 한 잔 것 내 물라마 어제 부스럼던 곳 피 배틀 풀어헤친 갈 (秋) 어스름에 방심 뼈 그때 살이 한 뼈 어울림을 이루고.

물고물라 어즈러히 흩건한 눈을 뿌리고 바로 서벽 물헤던 나무 그림자 보아라 넋잃고 하필이 빙그르로 우리네 진 가슴 끌린다보면 얼우얼우 추임새 소리일어 골내 나무어렐 가노란 한 가닥 멜림

삶 세 삶 자리매김 없이하여 이내 바으로는 하 미리 산 스무해 부들거 품에 안은 다순 숨결일랑 내내 식히지 말 것으로 거침없이 익이가는 탈춤 한마당.

사날 지우고 부딪칠거나 비비대는 죽지 틈사이마다 에 곤혹거리는 밤내 어설 삶내음 가득하나 박절리로 목주기고 시림 혀금 맛 쓰르로 웃거리 가락 한 녀 뜨인 목으로 바람이 불고 시나브로 찾아드는 짜릿한 술잔 한 조각

가련 밤에 오히려 얼림 밤 소리발의 얼굴 를 벼슬리고 벌이 초롱 불꽃을 사위고 박 관 찢마당에 끌림 슴 마디 어디라 외침려가 당신 뼈임음의 뜻 아아 그대 그상있음의 있음으로 삶인 을음 거내어 저 깊속한 을음 거내어.

※사날 : 번뇌스럽게 제 멋대로란 하는 행동

<아랍어과 · 3>

## 사랑마루

손가락 떼어나고 명심공히 할아버지가 되고나서부터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다.

사랑을 가지고 살다는 것이 그 소망이다. 요즘 아파트가 유행인 세대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하는 심정은 남이 듣으면 웃을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기 사랑이 소원이다. 그건 어든 있에 젊어있아 본질서를 이뤄면 어린시절에 대한 향수에서방은 아니다.

나는 시골서 자랑 콘트기에서 그렇지는 모르지만 그 시원같은 아파트 보다는 한 욕이 더 건 같고 슬퍼서 있어 보인다. 아파트는 권리하라고들 한다. 나는 그렇다. 방 안에 앞아서름의 방장만 쓸리면 모등 시설이 곧 손에 닿는곳에 있으니 편리할것이다. 그런난 네게는 바로 그 점이 도 불편하기도한 것이다.

사방이라고하면, 밖하자면 건 주인인 남자의 거처방이고 또 손님용 방는 응접실이고, 또 서재도 겸한 방이었다. 그럴 밖로는 아파트나 보통 양옥에도 응접실이나 서재는 마련되어있다.

그런데 그게 여기 내게는 불편했다.

문 하나만 열면 거기가 곧 안방이고, 또 돌아서 이쪽 문을 열면 거기가 곧 서재다. 편리할것 같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않다.

손녀가 이제 기어다닌다. 쩌라고 유월거리며 사방을 돌아다닌다. 그런 녀석은 곧 잘 할아버지 서재 문을 조그만 주먹으로 두들긴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바쁘고 중한 일이 있더라도 그 녀석을 맞이없이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럼이다. 불편하다는 뜻이.

그런데 한옥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 쩌어도 기어서는 나올수가 없다. 그러니 사랑은 그만치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주인들의 영어론들은 참 지혜로왔다는 생각을 한다.

어쨌든 나는 한옥에서 사랑방을 쓰며 살고 싶다. 그 혀은 소망이 증치면 이루어지질 않는다. 뿐아니다. 도리어 외대학보의 「사랑마루」마저 이제 없어진다니 섭섭하기만 한다. 나는 여시 이 시냐에는 잊지 않은 늙은 청춘일까.

이 범 선<한국어교육과 · 부교수>

## 사랑마루

이번 300호를 기하여 문화면에 개재되어 왔던 고정 칼럼 「사랑마루」가 문을 닫게 되었음니다.

「사랑마루」는 대학인의 생활주변에서 느낄수 있는 모든일들을 소재로하여 지난 77년11월21일자 (250호) 부터 마련되었음니다. 그동안 참여해주신 독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배전의 성원 부탁합니다.

<편집자주>

한비자 (韓非子) 의 외저설 (外儲說) 에 나오는 일화. 정 (鄭) 나라 사람 둘이 서로 자기가 연장자 (年長者) 라고 다툼을했다. 한편을 자기가 오 (吳) 임금과 동갑이라고 했고, 다른 한사람은 자기가 황제 (皇帝) 의 형뻘 동갑이라고 주장한다. 이럴때 손빈 (孫臏) 이 나서서 말하기 「임금과 자는 「이러한 일은 마지막까지 우기는 자가 승리한것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순과도 같은 비리는 오늘날에 더 더욱 더말수 있는것은 아닐까.

지난 겨울 유난히도 눈이많이 내렸다. 참으로 길면 겨울을 빕고 지금 한계면 미네르바의 불꽃들이 그리도 더려스러울수 없다. 그만큼 우리는 「서울의 봄」으로 지칭되는 80년대의 봄을 가슴 설레는 기대로 맞았으며 이제 본란한 가슴에 그 봄을 보내고 있다. 대립과 조화라는 갈등속에서 우리는 갈려스럽고 어수선하고 믿지 모를듯한 흐름에 빠져 있는 느낌을 갖는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선뜻 말할수 없는, 선택할수있으나 만일수 없는 것들에 싸여있다.

시원보로 믿기를 보여주겠다는 생각, 믿기를 속시원히 보였다는 조급함으로 우린 지금 서두르고 있는게 아닐까. 불꽃실한이 때에 더욱 인간한 열이에 스스로를 밀폐 해놓은건 아닐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폭소리를 낮추어야 한다. 「서로가 연장자라고 우기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린 좀 더 낮고겨려한 목소리로 남아있어야한다.

사방이 열어놓 시대를 존리 여기려다. 이웃이 피지 않는 일을 돌아다 보지않는 세태, 참으로 게삼이 밝은 세상을 보루를 옹체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굳이 밝을 하지 않아도 그 뜻이 전녀오는, 이해와 사랑으로 채워진 그런 어제 (昨日) 을 우리의 가슴속에 마련할수 있다면, 그런 날 일려 「사랑마루」라 부를 수 있을가.

그건 분명 나쁘박하고 안온하고 또 단단한 자리가 될것이며 뭣기둥이 조금한마음들이 서여가는 그런 자리가 될것이다.

손 광 춘<정치외교학과 · 4>

## 갈매기 조나산과 젊음 젊은이

### 「죠나산」적 사고(思考)가 개선을 위한 발판 될수있어

나는 「조나산 시갈 (Jonathan Seagull) 」을 통해 젊은 저성을 보았다.

「폭일화」로 저성되는 현대사회의 메카니즘 속에서 평범한 생활에 안주하는 젊은이의 상 (像) 이 어쩌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안식 (安息) 의 귀착점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상 (飛翔) 과 도약 (跳躍) 이 없는 젊음이 젊음이 라고 할 수 있을가. 은둔과 희피를 혐결하는 자세를 의식과 생활의 곳곳에 스며들게 하고, 고정관념의 굴레를 벗어나 일탈희피는 미를 근원적으로 재평가하여 그 심층적 의미를 추론해 내어 옳고 그름을 다시 밝혀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일어지는 허물인 정 (正)과 부정 (不正) 에 대한 사고를 사회에 피를려야 한다. 박문을 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럴곳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 아닐런지.

일반인은 젊은이들이 바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왜 그러한 생각이 일반인의 뇌리에 심어지게 된 것일까? 우리는 그 일반의 관념을 무조건 부정하기 이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되물아 볼 필요가 있다.

『젊은이는 술을 마신다. 』 『젊은이는 노래를—그것도 광란 (狂亂) 에 가까운—한다. 』 라는 것이 마치 젊은이로서 방연시되는 특질인 것처럼 윤위되는 경향조차 없지 않다.

인간의 한생은 가장 근본적인 인격과 사랑 그리고 인륜 (人倫) 이라는 세가지의 무형의 재 존재 가치를 반생시킨다고 나의 어줍잖은 소견으로 피력해보고싶다.

그 가치는 누구에게나 폐용되어야하며 동시에 생활인의 자세로서 구현되는 성질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가치로의 승화는 사회를 되시하는 비관적인 지성의 안목이 필요하다. 왕개 모르게 사회 깊숙히 침투해 있는 기성 (既成) 의 세속관념의 노출시키를 거쳐하는 의식의 요연을 분연히 악 (惡)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꾸어야 하는게다.

진부한 얘기이겠지만, 인간의 가치는 쌓에 파지우지 (左之右之) 되어서는 안된다. 일신상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매부문 폐지」로 이세상이 미만 (彌滿) 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부엇을 할 수 있다는 아니 부엇을 해야 겠다는 성취동기를 길러야 한다. 보다 높이 보다 깊닐기 위해서 부수한 자벽질을 거름한 「갈매기 조나산」의 고뇌를 이해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의식의 자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면연히 이어질 수있는 굳건한 기반위에 마련되어야 한다. 방종과 명신이 소중한 자유의 그것과 혼동될 때, 그 수필집을 내었다. 참인생의 주변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교수의 제언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모아져 있나.

대중사 펴냄. 값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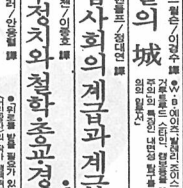
▲「하인리히 빌·그 인간과 문학」

송익희 지음

본대학 독일어과 (3회) 출신 동문로로 현재부산대에 재직중인 송익희교수가 「하인리히 빌」의 문학과 인간상을 분석하고 소개했다. 「그리고 아무없도 하지 않았다」「카타리나·부룸의 잃어버린 명예」등「빌」의 대표작 해설과 비평등이 실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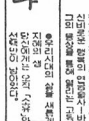
도서출판 거암 (巨岩) 발 값3,000원

## 이 문 만 평




골라잡기


25권이된 살아있는 책들



나무를 심읍시다.

# 弘盛新書

서울동 217-91 홍성빌딩216/9호-253-5111(代) 弘盛社

여기 25그루의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읍니다.
지성의 나무, 의식의 나무, 문화의 나무, 그리고 비평의 나무.
이 값진 나무들이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소중스러워 집니다.
바로 지금 메마른 지식의 황무지에 「살아있는 나무」를 심으십시오.

1 소유냐 삶이냐 ●에리히 프롬·김진홍 譯 23판
2 몽상의 詩學 ●가스통 바슐라르·김현 譯 4판
3 사회학적 상상력 ●W. 밀즈·이해찬外 譯 7판
4 사진과 사회 ●지젤 프로인트·성상경 譯 3판
5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B. 알리 레비·박영자 譯 3판
6 언어학의 이해 ●N. R. 개블·김진원 譯 1판
7 현대비평의 혁명 ●롤랑 바르트·김현 譯 3판
8 사회의 유형 ●T. 파슨즈·이종수 譯 3판
9 불확실성의시대 ●J. K. 갈브레이스·김태선 譯 9판
10 도스토예프스키 ●E. H. 카·김병익·권영빈 譯 5판
11 파괴란무엇인가 ●에리히 프롬·유기정 譯 7판
12 문학의 해석 ●N. 프라이·김인환 譯 2판
13 현대연극의 思潮 ●마틴 에슬린·김방옥 譯 2판
14 의식과 사회 ●H. 스튜어트 휴즈·김병익·황문수 譯 2판
15 현대비평의 이론 ●스테이시 올드·김태수 譯 2판
16 중공의 도전 ●A. 도리스 바넷·김영준 譯 2판
17 대중은 왜 빈곤한가 ●J. K. 갈브레이스·최광렬 譯 2판
18 새로운 산업국가 ●J. K. 갈브레이스·최광렬 譯 2판
19 카프카 ●G. 들뢰즈·가타리·김재혁 譯 2판
20 릴케 ●H. E. 홀트호프·김두식 譯 2판
21 생태주페리 ●E. 마이어·김재혁 譯 3판
22 민주정치와철학 ●한스 켈젠·이홍구 譯 3판
23 산업사회의 계급과 계급갈등 ●R. 다렌도르프·이데연 譯 3판
24 악셀의 城 ●에리히 프롬·이두수 譯 3판
25 西洋의 知的伝統 ●브룩노프스키·매클리·유석종·사하순 譯 3판

●25권, 弘盛新書 한질을 구입코저 하시는 분은 253/5111/5번으로 상담해주십시오. 직매장 · 조선호텔 306号 ●